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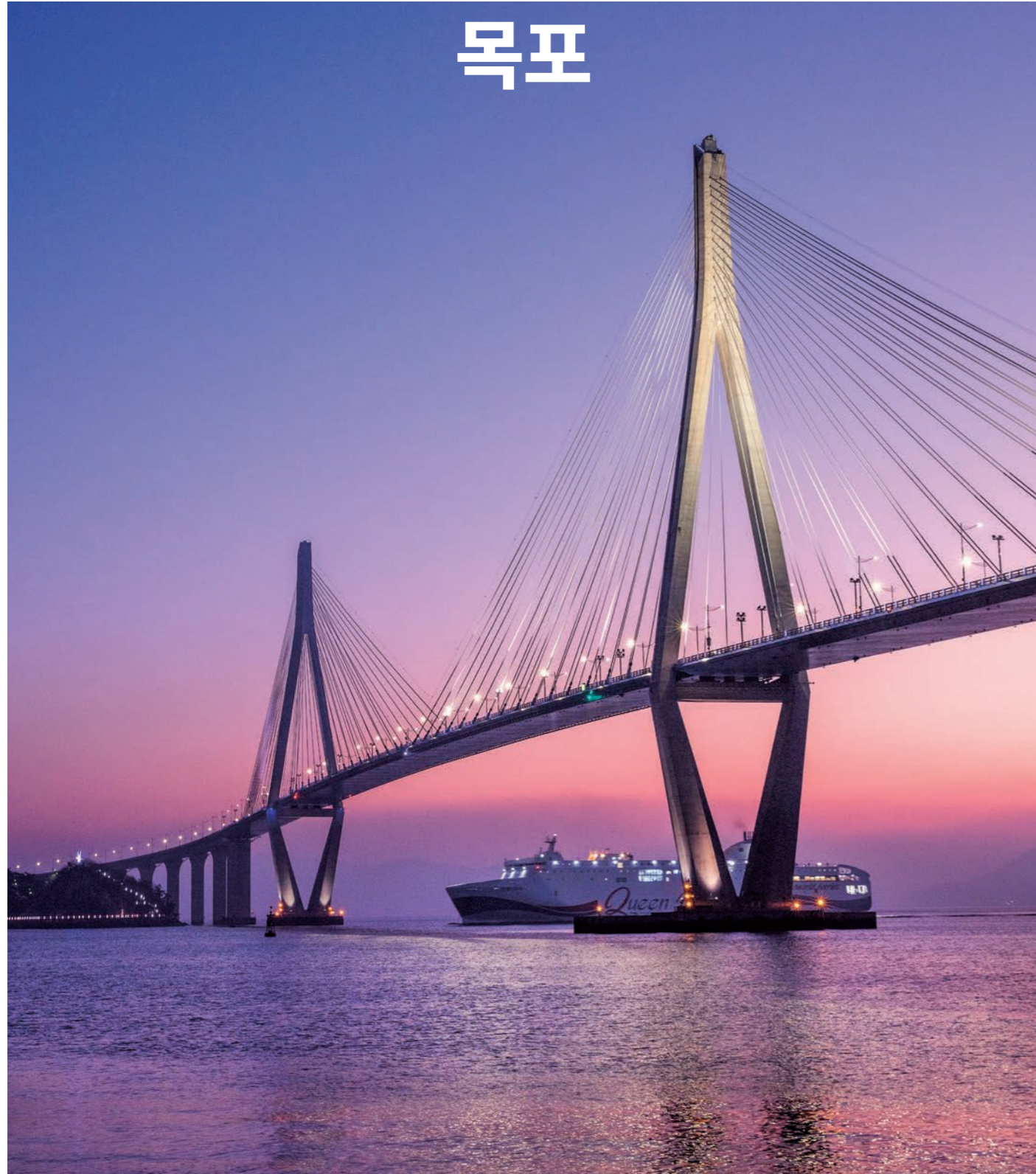
바로 지금, 여행

KTX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목포



낭만 항구 목포 예찬

관공 02-799-9175

KORAIL
한국철도

오늘, 강릉을 만나는 네 가지 방법

KTX
2024.02



KTX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강릉



바로 지금, 여행

02

오늘, 강릉을 만나는 네 가지 방법 | 대구 현풍백년도깨비시장으로 온 청년들 | 맺는 예술, 김혜순 매듭장

CONTENTS

2024.02

034 테마 여행 강릉

대관령에서 경포대까지. 강원도 강릉의 산과 바다, 문화유산을 속속들이 살핀다. 이번 여정의 안내자는 이 고장에서 활동해 온 네 명의 크리에이터. 새로운 관점으로 강릉을 여행하게 하는 이들의 행보를 바지런히 좇아 보았다.



mona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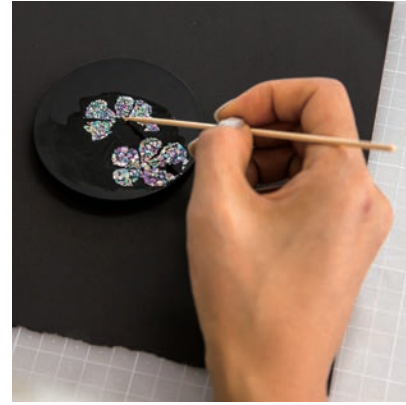
Plus Pen 3000
PRIME

유성볼펜으로 거듭나다

플러스펜 3000 프라임은 모나미의 플러스펜 3000^{수정} 디자인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유성볼펜입니다

(주)모나미 고객센터 080-022-0153 | 홈페이지 www.monami.com

2024.02



010

세계 도시 이야기

정월 대보름 밤, 타이완 타이난이 '2024 타이완 등불축제'로 반짝인다.

022

맛집 탐방

겨울의 맛이 녹아 있는 디저트를 찾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을 누볐다.

026

이런 여행 어때요

전남 강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여정을 강진군청 학예연구사가 소개한다.

054

기차 타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골목의 낭만. 전남 목포 서산동 시화골목을 걸었다.

062

이색 여행

대구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물에서 꿈을 펼치는 청년 상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070

촬영지 여행

뽀뽀한 대도시 서울에도 사랑이 피어난다. 특히 요즘은 판타지 로맨스가 대세다.

074

맞춤 여행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의 전설을 품은 여행지를 모았다. 기상이 꿀뜰거린다.

076

작가의 방

국가무형문화유산 매듭장 김혜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맺고 푸는 기쁨을 만끽한다.



KORAIL INFORMATION

090

코레일 소식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00

열차 이용 안내

102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 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기에”

진료의 기다림을 빠르게

회복의 기다림을 빠르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그랜드오픈
대한민국 의료문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다



경험 설계

- ▶ 예약, 진료, 검사, 수납까지 원스톱 서비스
- ▶ 모바일 예약 및 대기 시간 안내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 ▶ 진료수납 하이패스 구축

공간 설계

- ▶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까지 직통 에스컬레이터 개통
- ▶ 심혈관센터, 암병원, 뇌신경센터 등 다학제 협진을 위한 진료 공간 배치

힐링 설계

- ▶ 환자·보호자를 위한 힐링공간 설계
- ▶ 미디어월 설치

들어가는 글



파도와 모래에 씻긴 몽툰한 유리 조각을 '바다유리'라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은 끝이 날카로워 자칫 손을 베기 쉬운데, 풍파를 견디다 탄산나트륨과 석회 성분이 녹은 바다유리는 조각돌처럼 뽀얗고 반들반들해서 자꾸 만지고 싶어집니다. 쓰임을 다한 뒤에 버려진 해양 표류물이지만, 최근엔 고유한 질감을 지닌 공예 소재로 환영받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유리 공방 '유리알유희' 이경화 대표는 바다유리 전시 공간 한편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찬란하지만 날 선 젊은 시절을 지나며 무수히 다치고 깎이는 우리들 그 세월의 상처로 말미암아 어느새 둥글고 온화하게 변하는 우리는, 바다유리를 닮아 있다." 유리 조각에서 바다유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곧 인생이라면 지금 어디쯤 머무르고 있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디든 괜찮은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끝내는 바다유리.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실컷 부딪고, 구르고, 뒹굴고, 쓸리고, 가끔은 널브러져야겠습니다.

<KTX매거진> 부편집장 강은주

KTX 바로 지금, 여행
FEBRUARY 2024

2024년 2월호 제21권 제2호 통권 제236호
2024년 2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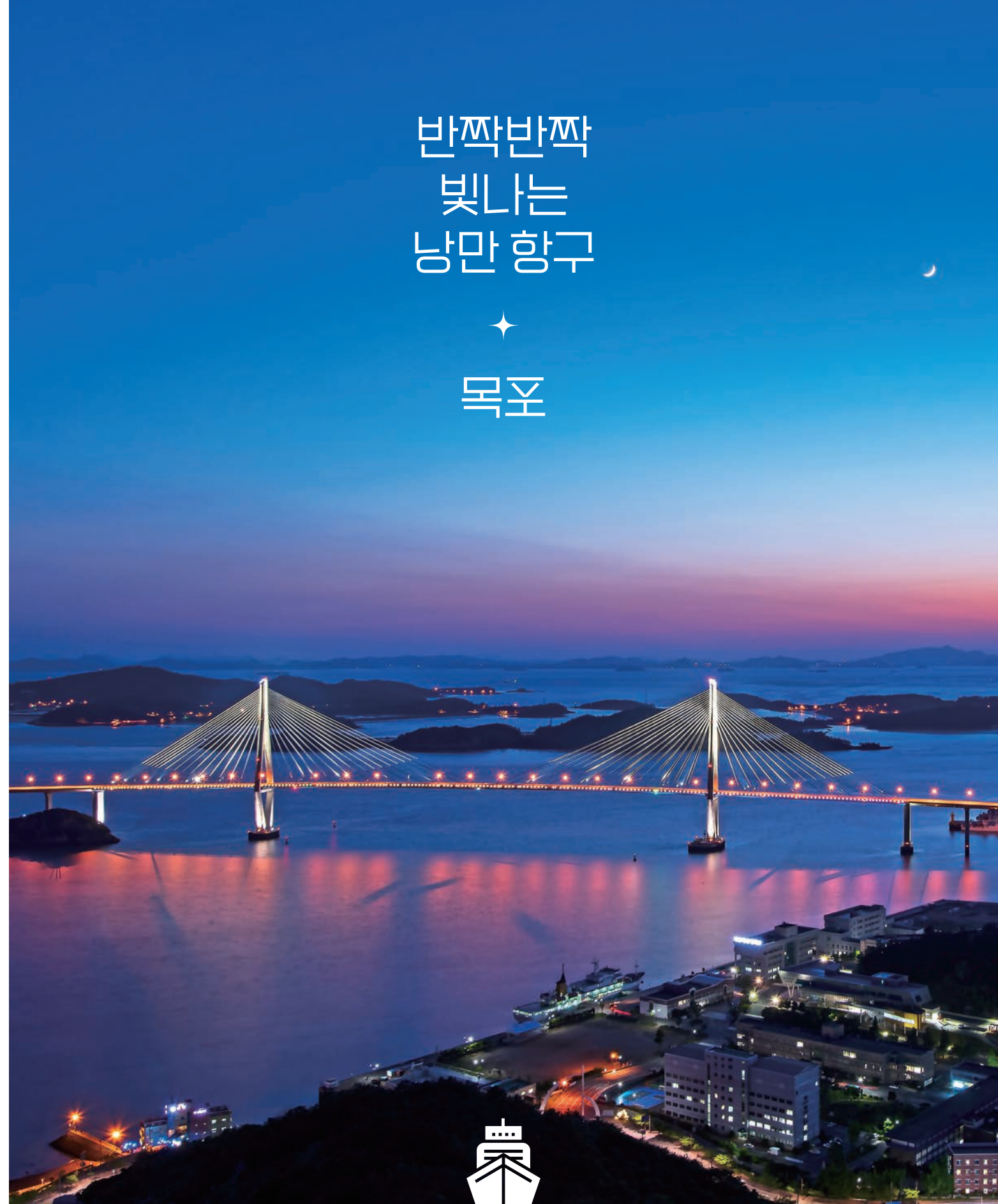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반짝반짝
빛나는
낭만 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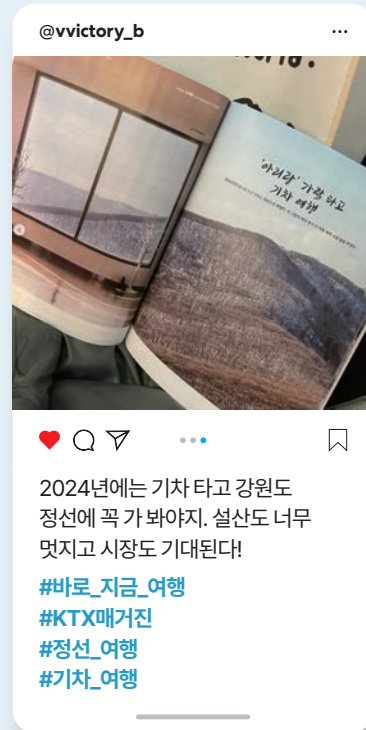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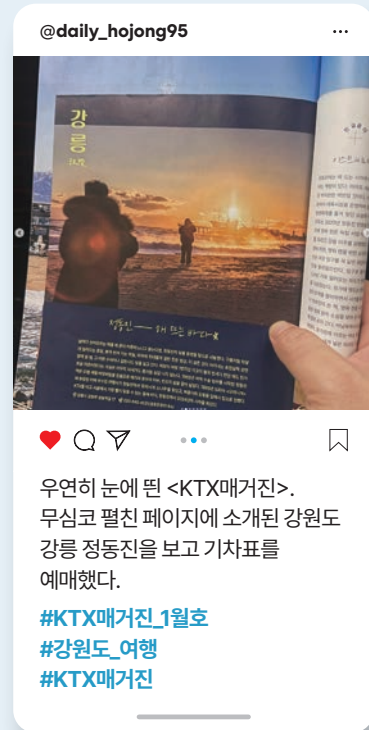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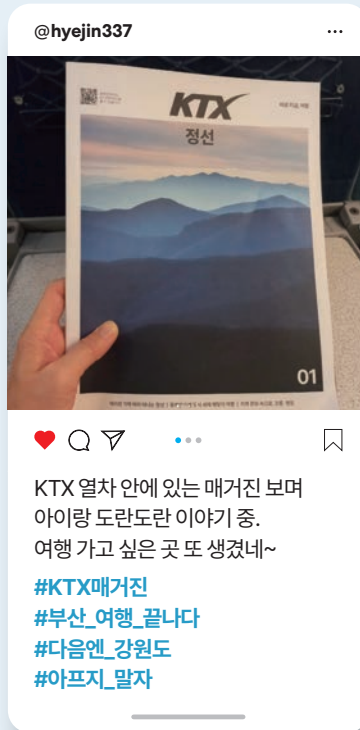
☆
목포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azine

선물 받아 가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당류·콜레스테롤·트랜스지방 함량 제로인 초콜릿 간식 **초코헬스 제로넛츠**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아몬드·헤이즐넛·캐슈넛트에 무설탕 초콜릿을 코팅한 제품으로, 벨기에산 리얼 다크 초콜릿 등 높은 품질의 원재료만 사용했습니다.

제품 문의 02-791-0756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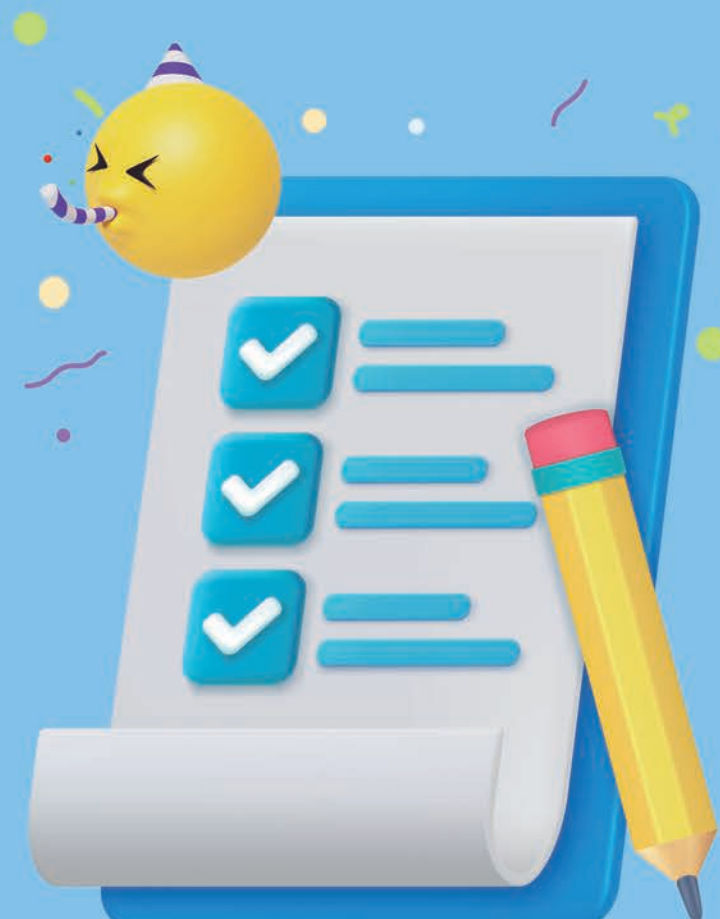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2024.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KTX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좋은 의견을 남겨 주신 30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2.1. - 2.29.

2024년 독자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설문 조사에 참여하시면
30분을 선정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 주신
의견은 더 나은 <KTX매거진>을
만드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설문 조사 참여 방법

① 이 페이지의 QR코드를 스캔한다.
② 설문 조사에 참여한다.

+ 파나소닉 스팀 청소기(MC-S5W, 화이트)

고온 살균 스팀 청소기로 바닥 청소가 편해진다. MC-S5W는 130도의 강력한 고온 스팀으로 목은때와 찌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살균 청소한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30초 만에 예열되어 빠르게 청소할 수 있는 데다 1.7킬로그램의 가벼운 무게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가격 11만 원 상당 문의 www.panasonic.co.kr

*당첨자는 2024년 4월호에 발표하며, 선물 발송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명



달에 보내는 소원, 타이난

2024년 정월 대보름 밤, 타이완 타이난에서 수천 개의 빛이 일제히 떠오른다. 간절한 염원을 안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천등이다.

TAI
NAN

달이 휘영청 밝다. 일정한 주기에 맞추어 변함없이 차고 기운 다지만 정월의 첫 보름달은 어쩐지 특별하다. 음력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 부르며 각별한 날로 여기는 한국처럼 타이완도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을 원소절이라 이름 짓고 뜻깊게 보낸다. 원소절은 설날인 춘절 다음에 찾아오는 타이완의 두 번째 명절로, 예부터 사찰이나 집에 등불을 내건 채 폭죽을 터뜨리고 모두의 안녕을 기원했다. 오래전 황제의 즉위를 기념하거나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 거행한 이 의식은 시간이 흘러 민간에 널리 퍼졌고, 오늘날 천등에 소원을 적어 하늘에 날려 보내는 등불축제의 모습으로 자리 잡는다.

화려한 등불축제 덕에 세계에 이름을 떨친 신베이, 핑시 같은 도시는 이맘때 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핑시 천등 축제는 방문자 수가 매년 10만 명이 넘는 정도라니, 지역 주민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중대한 날일 테다. 정부 차원에서 기획하는 '2024 타이완 등불축제' 역시 성대하다. 2000년까지는 타이베이에 자리한 주요 사찰을 무대로 했으나 최근 해마다 개최지를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타이완 역사가 40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지역 선정에 공을 들였다. 무대는 바로 남부에 위치한 도시 타이난. 1624년 네덜란드가 원주민이 거주하던 현재의 타이난 땅을 발견한 뒤 점령하고 지배하기에 이르는데, 이때가 타이완이 처음으로 서구 문헌에 이름을 남기는 순간이다. 타이난 곳곳을 누비다 보면 과거의 흔적을 쉽게 발견한다. 네덜란드가 주도해 건축했다는 안핑 고성 유적, 타이완의 경제 기반을 마련한 타이난 운하, 타이완의 역사를 한 곳에 응축한 국립타이완역사박물관 등이 지난 시간을 증명하니, 과연 4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주인공으로 선정될 만하다.

도시에 다시 밤이 찾아온다. 수천 개 천등이 타이난의 깜깜한 하늘을 수놓는다. 각자의 소원과 축복이 커다랗고 둥그런 달을 향해 느릿느릿 떠간다. 지구에서 보낸 편지가 언제 달에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소원을 빈 이들의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이다. ☺



'2024 타이완 등불축제'가 타이난 안핑과 타이난 고속철도역 일대에서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펼쳐진다. '영광으로 빛나는 타이난'을 주제로 여는 축제는 각종 등불 작품으로 옛 수도 타이난의 웅장함을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문의 www.taiwantour.or.kr

버려진 건물에 꽃이 피었다

쓰임을 다한 공장, 전력소, 교회, 모텔에 예술이 생기를 불어넣는다. 지역 곳곳에 활짝 핀 재생 공간으로 여행을 떠날 시간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는 공중목욕탕과 교회로 사용하던 낡은 건물이 있다. 판이한 두 업종이 시간차를 두고 한 건물을 점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 심지어는 브랜드 팝업 스토어와 실험적인 설치미술 전시를 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또 한 번 모습을 바꿨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독보적인 공간감으로 화제를 모아 온 '금호 알베르' 이야기다. 이듬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난방을 공급하던 전력소도 '파워플랜트'란 이름의 전시 공간이 되어 주목받았다. 지난여름엔 이곳에서 미디어아트 레이블 '버스데이'와 뮤지션 오혁의 전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폐건물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이러한 사례가 지역 곳곳에서 빈번한 것은 분명 짚어볼 만한 현상이다.



주목해야 할 지역 재생 공간

대안공간 NAH 설악 설악동의 폐모텔이 자연, 예술, 인간의 관계를 고민하는 현대미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주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836번길 15

헤레디움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 지점이 동시대 예술의 미감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부활했다. 주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35

조치원 1927 아트센터 한림제지 공장으로 쓰던 폐건물이 공연, 전시, 각종 문화 행사를 아우르는 지역 예술 구심점으로 진화했다. 주소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4길 17



지역 재생 공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폐모텔. 강원도 속초 설악동, 과거 '하늘정원'이란 이름으로 영업하던 숙박 시설이 10여 년째 방치되어 있었다. 아티스트이자 미술학 박사 이호영 대표는 이 건물에 자연(nature), 예술(art), 사람(human)의 영문 이니셜을 따 **대안공간 NAH 설악**이라 이름 붙이고는 동료 작가들을 불러 모아 인상적인 현대미술 프로젝트를 펼치는 중이다. 찢긴 벽지 위에 액자를 걸고, 버려진 매트리스에 새빨간 의자를 비치하고, 숨이 비어져 나온 베개를 얼굴 삼아 표정을 그려 넣고, 낡은 번기에 조명을 비추 뒤상의 '쌔'를 환기하는 초현실적 풍경. 개관전 <재탄생-설악의 봄>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설악국제미술제>에 이르는 이곳의 전시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건 폐모텔 부산물에서 비롯한 설치 작품을 통해 자연, 예술, 사람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대전역 인근, 쌀 시장이 자리하던 동구 인동의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 지점 건물을 살필 차례다. 일제의 수탈 기관이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서

지난가을부터 1월까지 독일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안젤름 키퍼의 전시가 열렸는데, 작품 상당수가 신작이라는 사실에 이목이 쏠렸다. CNCITY 마을에너지재단은 이 건물이 올라선 지 꼭 100년이 되는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보수 작업을 거쳐 동시대 미술과 클래식 음악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 **헤레디움**을 완성했다. 유려한 석조 장식이 돋보이는 파사드와 고풍스러운 목재 창문, 섬세한 외벽 타일과 천장 마감 등을 고증하고 복원해 역사적 의의와 지역 재생이라는 가치를 충실히 살렸다.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개최하는 새 전시 <헤레디움 시리즈: 현대미술 특별전>과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마련하는 1세대 피아노 거장의 무대 <레전더리 피아니스트 & 마스터클래스>에서 이 공간에 깃든 아름다움의 실체를 확인해도 좋을 것이다.

세종에는 2023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조치원 1927 아트센터**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제사 공장, 6·25전쟁 당시 조치원여고 임시 학사, 1960년대부터 2003년까지 한림제지 공장으로 쓰던 폐건물이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누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면적 1467제곱미터, 2층 규모의 널찍한 건물은 공연, 워크숍, 포럼, 전시, 베틀시장 등 온갖 분야의 행사를 근사하게 소화한다. 낡은 저수조와 굴뚝, 빛바랜 나무 계단, 공장 직원들이 기숙사로 쓰던 다다미방 등 건물의 내력을 집착하게 하는 역사적 자취가 남다른 감흥으로 다가온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북 청송의 대전초등학교 폐교에 들어선 '남관 미디어아트홀', 경기도 평택의 버섯 재배 단지를 개조한 '공간미학', 옛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장애인 미술가를 독려하는 전시 공간으로 거듭난 '에이블아트갤러리'까지. 어쩌면 등잔 밑이 어두워 미처 알지 못한 우리 주변의 예술 공간이 발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지 모른다. ㉔

2024 전남·경남 청년작가 교류전

2024 Jeonnam-Gyeongnam Young Artists Exchange Exhibition

오후 3 PM 세시

감성빈
김설아
김원정
노순천
박인혁
설박
윤준영
이정희
정나영
정현준
조현택
최승준
하용주
한혜림

Gam Seongbin
Kim Seola
Kim Wonjung
No Sooncheon
Park Inhyuk
Sul Park
Yoon Junyoung
Lee Junghee
Jeong Nayoung
Jung Hyeonjun
Cho Hyuntaek
Choi Seungjoon
Ha Yongjoo
Han Hyerim

2024. 1.30. TUE — 3.24. SUN 전남도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Provincial Museum



전국 지자체 자랑

패러디, 웹 드라마, 마스코트 등 내 고장을 알리는 법도 가지각색이다. 재치 넘치는 고장 홍보 방법을 부문별로 모았다.



소개는 '힙'하게 뮤직비디오 부문

충남 청양 (칠갑산 EDM) 애절한 노래 '칠갑산'에 전자음악 장르 EDM을 결합했다. 2023년 11월에 공개한 '칠갑산 EDM' 뮤직비디오는 파격적이다. 청양군 마스코트 청양이와 주민들이 출연해 '칠갑산'을 EDM으로 리믹스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애절한 가사대로 연기까지 한다. 칠갑산천문대, 청양전통시장 등이 나오니 눈 크게 뜨고 감상하자.

전남 광양 (광양관광 홍보 뮤직비디오) 여행 정보를 힙함으로 얻는다. 유튜브 채널 '광양시관광협의회'에 업로드한 영상으로 원썬, 라마, 차드영, 엠씨엘민 네 래퍼가 가수이자 작곡가인 우드스타의 프로듀싱 아래 광양 9경 9미를 노래한다. "충무공 정신이 깃든 이순신대교 위에 다 내려놓고 So cool" 같은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와 흥이 난다.

웃음으로 승부한다 패러디 부문

충북 충주 (유튜브 채널 '충주시') '홍보맨'이라 불리는 김선태 주무관이 직접 기획, 촬영, 편집해 만든 영상을 올린다. 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 등을 유행에 맞춰 재치 넘치게 소개하는 것이 채널의 포인트다. 공중부양 춤이라 부르는 '슬릭백'으로 상수도 공사 진행을 알리는 영상은 무려 조회 수 300만 회를 돌파했다.

울산 남구 (유튜브 채널 '고래방송국TV')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패러디한 <나는 솔로>로 눈길을 모았다. 각 출연자는 남구청 공무원으로, 소속 부서에서 진행하는 정책과 울산 남구 여행지 홍보 등을 세 편에 자연스럽게 녹였다. 인기 드라마 <무빙>의 한 장면을 패러디해 자동차세 체납과 번호판 영치 내용을 다룬 영상도 호평받았다.



귀여워서 고마워 마스코트 부문

경남 진주 (하모) 머리 위에 조개를 얹고 왕진주 목걸이를 한 캐릭터가 사랑스럽다. 진주 시민을 넘어 전국에서 사랑받는 '하모'는 진주 진양호와 남강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수달을 모티브로 하는 지역 마스코트다. 공개 직후 깜찍한 외모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이제는 누구보다 진주 홍보에 앞장선다.

경기도 수원 (수원이) 경기도 수원 역시 귀여움이라면 지지 않을 마스코트가 존재한다. 수원에서 최초로 발견한 한국 고유종, 수원청개구리가 모티브인 '수원이'다. 멸종 위기종 수원청개구리 수원이에게는 꿈이 있다. 바로 슈퍼스타 개구리로 거듭나는 것. 도시를 대표하는 캐릭터임은 물론, 수원청개구리를 알리는 데 제 몫을 톡톡히 한다.

신흥 홍보 강자 웹 드라마 부문

강원도 원주 (러브 인 블랙홀) 지역을 알리는 수단으로 웹 드라마가 새롭게 떠오른다. <러브 인 블랙홀>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화이트 홀의 단서를 토대로 사랑을 찾아 나서는 청춘의 모습을 담은 판타지 로맨스다. 소금산 출렁다리, 강원감영 등 원주 하면 떠오르는 여행지가 이야기의 무대로 등장한다.

전남 순천 (백설공주와 수상헌 여행사) 헬스장 '머슬트립'을 운영하는 순천 토박이 동식, 강식, 춘식 앞에 시공을 초월한 능력자 백설이 나타난다. 이들은 어느 날 헬스장을 여행사로 착각한 노부부가 찾아와 영겁결에 순천 여행 가이드를 맡게 된다. 탄탄한 스토리는 물론 낙안읍성, 순천만국가정원 등 순천의 모습을 잘 담아냈다.



신메뉴 매운 한우 소곱창 쌀국수 출시! 땀땀 서울역점

아시아 보양 요리 레스토랑 '땀땀'을 이제 서울역 3층 식당가 커넥트플레이스에서 만난다. 기차에 오르기 전 쌀국수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랜다.

유튜버 썬양의 먹방 속 바로 그 쌀국수

이 계절에 더 생각나는 메뉴, 바로 쌀국수다. 무수히 많은 쌀국수 식당 중에서도 유독 눈길이 가는 곳이 있다. 몽근하게 끓여 낸 진한 사골 육수를 자작하게 부은 뒤 양질의 곱이 짝 찬 한우 소곱창을 듬뿍 얹은 신메뉴 '매운 한우 소곱창 쌀국수', 진득한 특제 보양 육수에 엄선한 소고기를 잔뜩 올린 '프리미엄 보양 쌀국수'의 자태에 절로 군침을 삼키게 되는 곳. 최근 유튜버 썬양이 방문해 경이로운 먹방을 선보이며 또 한 번 화제를 모은 아시아 보양 요리 전문점 '땀땀'이 그 주인공이다. 영상 속 쌀국수의 먹음직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다면 당장 따뜻한 면발과 국물을 훌훌 먹고 싶다.

서울역 커넥트플레이스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땀땀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서울 역삼동 땀땀 본점까지 찾아갈 여유가 없는 이에게 땀땀 서울역점을 추천한다. 최근 3층 식당가 커넥트플레이스는 리뉴얼 공사를 통해 한층 쾌적한 미식 공간으로 거듭났다. 여기 입점한 땀땀 서울역점을 찾는다면 문밖에서 줄 서는 수고를 더는 것은 물론,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언제든 기차에 탑승하기 전 들러 허기를 달래기도 좋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맛있고 든든한 쌀국수 한 그릇으로 여행을 시작해 걸음걸음이 더 즐겁다. 고소하고 농밀한 풍미가 매력적인 새 메뉴 매운 한우 소곱창 쌀국수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맛볼 기회다.

땀땀 서울역점 대표 메뉴



- 매운 한우 소곱창 쌀국수**
한우 소곱창을 사용해 화끈한 풍미를 살린 프리미엄 메뉴
- 매운 소곱창 쌀국수**
특제 보양 육수에 고소한 소곱창을 얹은, 땀땀 최초 개발 메뉴
- 프리미엄 보양 쌀국수**
진한 사골 육수에 엄선한 소고기를 듬뿍 올린 땀땀 시그니처 메뉴
- 숯불 직화 소고기 쌀국수**
참숯 직화구이 우삼겹을 토핑해 불 향을 입힌 쌀국수
- 양지 쌀국수**
농밀한 사골 육수에 소고기 양지 부위를 아낌없이 넣은 쌀국수

땀땀 서울역점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서울역 3층 커넥트플레이스
☎ 0507-1381-8670





02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파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 01.라운지 수 02.노천탕 03.객실 04.실내탕
05.객실 정원 06.카페 07.만이 차림
08.만물(충북의 화반) 09.숙회(오늘의 제철 숙회)
10.운새미로 11.알천 : 한우 구이와 한방 수비드
삼겹살 12.조식 : 13첩 반상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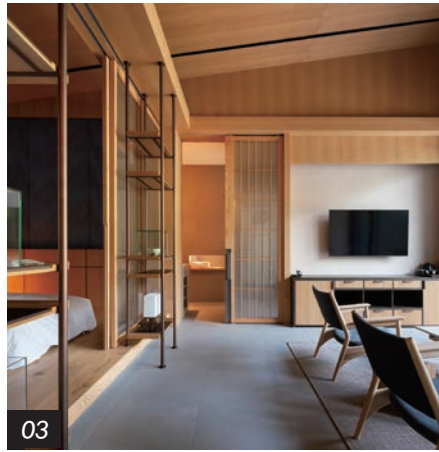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사가 17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36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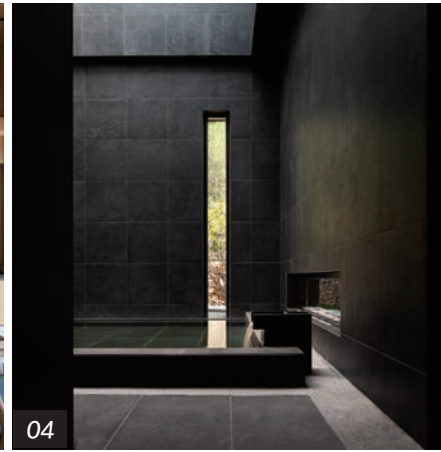
직원 채용 공고

- 객실팀(프런트)
- 접객서비스팀(F&B)
- 주방 Line c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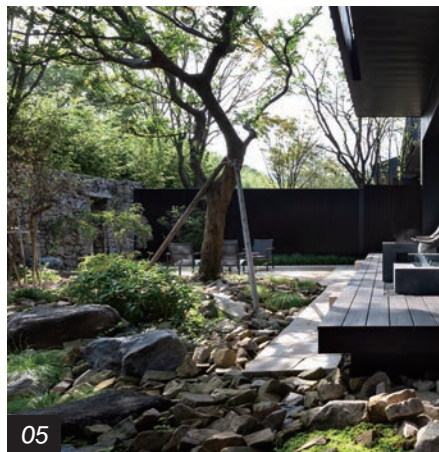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사람인 잡코리아
채용 공고 확인하시거나,
전화 문의 바랍니다.



03



04



05



06



1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07



08



09



10



11



12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온전한 휴식의 정점

유원재의 식사는
오감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요소로 구성되어
온천욕과 자연으로 비워낸 여백을 새로운 가치로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한 온전한 휴식의 여정의 정점입니다.

원재료 본연의 맛이 녹아든 균형 잡힌 요리는
시각의 아름다움과 미각의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강화 섬 굿즈 탐구

왕골, 사자발약쑥, 섬쌀... 지역 특산물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인천 강화의 굿즈를 소개한다.

1- (진달래섬) 왕골 그림톡

화문석, 순무, 소창, 고인돌 등 강화 하면 떠오르는 모든 것을 굿즈로 제작하는 소품샵 진달래섬. 그중 '왕골 그림톡'은 오묘한 색이 매력적이다. 강화 화문석을 알리기 위해 사진집 <왕골>을 엮은 완공 공예 기능전승자 서순임 장인이 직접 제작했다. 방직공장을 개조한 인더스트리얼 카페 '조양방직' 바로 곁에 위치해 함께 둘러보기 맞출이다.

문의 @jindalrae_island

2- (금풍양조장) 금풍양조

1931년 이후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3대째 막걸리를 빚는 곳, 금풍양조장은 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술을 담근다. 강화의 친환경 무농약 쌀만 사용하고, 감미료를 넣지 않을 것. 마지막은 쌀포대를 재활용하는 등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것이다. 강화 쌀과 온수리 지하수로 만든 술은 탄산감이 없으며, 진한 과일 향이 나 자꾸 잔을 채우게 된다.

문의 @on_sul

3- (소요소다) 여유의 온도

크래프트 맥주 마니아인 양조사 조용균 대표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크래프트 소다라는 황무지에 뛰어들었다. 강화 특산물인 사자발약쑥과 진피, 토복령이라 부르는 청미래덩굴 뿌리로 음료를 개발했다. 부드러운 탄산과 적당한 단맛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맛본다. 토닉워터 대신 술과 조합해 즐겨도 좋다.

문의 @soyo.soda

4- (송화칩스) 교동 깡자칩

교동시장 부근에 자리한 송화칩스는 수제 깡자칩·고구마칩과 각종 음료를 선보인다. 특이한 점은 레트로를 콘셉트로 커다란 깡통과 참기름병에 메뉴를 담아낸다는 것. 대표 메뉴 '교동 깡자칩'과 '교동 고구미'는 국내산 감자와 고구마를 엄선해 얇게 썬 다음 기름에 정성스레 튀겨 낸다. 어니언, 허니버터, 매콤치즈 등 다양한 시즈닝을 더해 취향대로 맛본다.

문의 @songhwa_chips



ganghwa goods



부담 없는 칼로리로 즐기는 옥수수 특유의 고소함

라라스윗 옥수수 모니카 3.3점

강은주 '라라' 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맛. 원고를 쓰면서 천천히 녹여 먹었는데,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적당히 엉겨 더 조화롭게 느껴진다. 빵 샌드와 퍼 먹는 파인트까지, 옥수수 3종 모두 정복해야지. ★★★★★ / 남혜림 아이스크림 잘하는 곳으로 소문난 라라스윗의 신작이라니, 기대감을 안고 베어 물었습니다. 아아, 구수한 옥수수 향. 그리고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한 가지 슬픈 점은 포장지 사진처럼 옥수수 알갱이가 알알이 들어 있진 않다는 거예요. ★★★ / 김현정 라라스윗 모니카를 냉동실에 상비해 놓는다. 많이 달지 않아 가끔(사실은 아주 가끔) 아이스크림이 생각날 때 3분의 1을 먹고 넣어 놔다가 '아주 가끔'이 또 찾아오면 3분의 1 꺼내서 먹고... 그런 아이টে인데 저는 옥수수 취향은 아닌가 봐요. 부드러운 바닐라와는 다른 느낌. ★★★

3.5점 나이스케키 그린리

강은주 유당불내증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대표님이 개발한 제품. 수입 재료 대신 한국 쌀을 사용해 푸드 마일리지도 좋았다고 한다. 유지방 0퍼센트인데 이렇게 부드럽다니, 완벽하게 '나이스'한 기본이다. ★★★★★ / 남혜림 한 입 넣자마자 녹차의 맛과 향이 밀려옵니다. 녹차를 첨가한 디저트를 선호한다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다만 먹고 난 후 콧맛이 사라지지 않네요. 이 부분만 해결한다면 완벽한 비건 아이스크림이 되겠어요. ★★ / 김현정 인간이 소에게서 우유를 얻어 내는 과정을 알고 나니 '비건해야지' 하는 생각이 점점 차오른다. 커피도 라테만 마실 만큼 우유를 좋아하지만, 열혈에 한 번은 귀리로 바꿔 적응하는 중이다. 입이 짧아 어린 시절 '베오밀'을 한 입 마시고 지금까지 지켜 온 '두유가 없는 삶'이며, 안녕. 비건 아이스크림 안녕, 반가워. ★★★★★



우유와 달걀 없이 쌀로 만든 순수 비건 아이스크림

얼어도 좋아, 아이스크림

이 계절, 아이스크림 신제품을 맛보며 겨울을 겨울답게 즐겨 보았다.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을 만나 사랑스러워진 맛

빙그레 엑셀러트 딸기 & 소다향 2.5점

강은주 열 살 어린이가 된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티니핑을 '캐치'하러 다니겠지. 마음을 열어 딸기와 소다맛 엑셀러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딸기 맛은 간신히 받아들였는데, '뽕따'를 녹여 낸 듯한 소다 맛은... ★ / 남혜림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에 등장하는 티니핑의 종류가 40가지를 넘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포장지에 각각의 티니핑을 그려 넣었습니다. '캔오바'를 떠올리게 하는 소다 향이 인상적이에요. 귀엽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또 먹고 싶어요! ★★★★★ / 김현정 커다란 눈 초롱초롱 뜨고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존재 앞에서는 몸 둘 바를 모르겠다. 포장 찢을 때 아이들 얼굴 부분 훼손을 피할 수 없어 괴로웠다(이 넓은 지구에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은 더 있겠지...). 딸기는 우유 맛이 진해서 먹을 만했고, 소다 맛에는 왜 우유를 넣었는지 궁금하다. 엑셀러트는 파랑 포장이니 진리. ★★

4.0점 롯데웰푸드 찰떡아이스 소금 크림

강은주 푸하하, 하고 터져 나오는 웃음. 맛있게 구워 낸 소금빵을 재현한 듯한 만들새가 정말이지 귀엽고도 먹음직스럽다. 쫄쫄득득한 겉 부분을 살짝 베어 물자 입안 가득 짭조름한 크림이 밀려오니 행복감이 치솟는다. 이렇게 맛있는 소금 크림 찰떡이 두 개나 들어 있다. 기쁨이 두 배다. ★★★★★ / 남혜림 포장지에 '소금 크림'이라 적은 것을 보고 기대했건만, 생각보다 '단짠단짠'이 느껴지진 않았습다. 굳이 따지자면 '달콤달콤'이에요. 물론 저는 단 음식을 좋아해서 호감입니다. 크림빵처럼 생겨 먹는 재미가 있어요. ★★★★★ / 김현정 먹자마자 나온 혼잣말. "왜 이렇게 맛있어ㅠㅠ" 1986년 출시해 38년 세월을 생존한 아이스크림답다. 식감 다른 두 음식이 이렇게 잘 어울릴 일인가. 2062년에는 찰떡 속에 어떤 걸 넣고 있을지 기대된다. 언제나 맛이 그대와 함께하길. ★★★★★



한입에 맛보는 찰떡 공합, 푸하하크림빵 x 찰떡아이스

문단 25*

WELLSENSE 고민 백과

피로, 제대로 풀고 있나요?

집중이 안 되거나 무기력감이 심하다면 피로를 해소해야 할 때. 피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베스트
질문 10

왜 피로할까?



<우먼센스> 웹페이지에서는 웰니스 콘텐츠와 체험단을 다루는 웰니스 서비스 '웰센스(WELLSENSE)'를 만날 수 있다. 그중 구독자 참여 콘텐츠인 '고민 백과'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사랑받는 코너다. 이번 주제는 '피로 해소'. 일상에서 쌓인 피로에 대한 고민을 받는 페이지를 열고, 100개가 넘는 질문이 올라왔다. 만성피로, 카페인, 비타민 관련 궁금증 등 베스트 질문을 선정해 WE클리닉 조애경 원장에게 자세한 답변을 들었다.

조애경 WE클리닉 대표원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깐깐 닥터 조애경의 W 뷰티>
<조애경 다이어트 주스> 외
저서 다수 집필
MBN <천기누설>,
MBC <기분 좋은 날> 자문 등



1 Q 단순 피로감과 만성피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과로하거나 밤을 새우면 피로감을 느낍니다. 일시적인 피로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 숙면으로 바로 해소되지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Q 음주와 흡연도 안 하는데 간 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옵니다. 피로를 자주 느끼는 이유가 이 때문일까요?
원인부터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때문인지, 독성 물질에 의한 것인지, 지방간이 문제인지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죠. 간 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세 배 이상 높다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Q 새벽마다 잠이 깨서인지 피로감을 느끼고 헛바늘도 자주 생깁니다. 헛바늘이 피로와 관계 있나요?
헛바늘은 허의 유두가 염증으로 솟아오르는 증세로 궤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요. 새벽마다 잠에서 깨면 숙면을 취할 때 나오는 재생과 회복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되어 헛바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로 해소 관련 궁금증

1 Q 카페인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나요?
카페인은 정신 활성 성분으로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피로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지며, 이뇨 작용을 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숙면을 방해하고 피로가 가중됩니다. 또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는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에 300밀리그램(3잔, 캔 커피 2개)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아요.

2 Q 비타민 C를 꾸준히 챙겨먹으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나요? 꼭 오전에 복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비타민 C는 활성산소와 독소의 공격을 막는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감기에 걸렸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음했을 때나 불면으로 힘들 때 비타민 C 요구량이 더 높아지는데, 이때 적절하게 섭취하면 면역 기능이 향상돼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주지요. 공복 상태에서는 빠르게 흡수·배출되므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2 Q 수액이 효과가 있나요?
원인에 따른 치료 필요해요. 일시적인 과로, 수면 부족, 감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피로감이 높은 경우 고용량 비타민을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수액을 맞더라도 만성 과로, 수면 부족, 과음, 흡연 등으로 피로가 누적됐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Q 영양제를 매일 복용하는 것이 간에는 좋지 않지만, 간 기능 영양제는 괜찮다고 들었어요.
영양제라고 모두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니에요. 제조 과정에서 포함된 여러 성분을 간이나 신장이 해독해야 하죠. 독성이 약제에 비해 약하므로 적절하게 섭취하면 큰 문제 없지만, 과다 복용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 영양제를 먹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입니다. 음주 중 간 보호제를 먹고 안심하는 것처럼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신에게 맞는 영양소를 보충하고, 가능한 한 천연 식품을 고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상 속 피로 해소

1 Q 수분을 적당히 섭취하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피로 해소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 순환장애로 이어져 피로감을 유발하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적당량의 수분은 피로감을 낮추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죠. 하루 8컵 정도 섭취를 권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트레스 과다, 수면 부족 상황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숙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채소와 잡곡을 섭취해 영양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2 Q 겨울철이라 햇빛을 못 봐서인지 활기가 없어지는 느낌이예요. 활력을 되찾고 피로를 푸는 방법이 궁금해요.
겨울에는 기온과 일조량이 떨어져 활동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잘 안 챙기게 되면서 영양 결핍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요. 식사를 단순 당질, 간식 등으로 대체해도 피로가 쌓이므로 주의해야 해요.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 단백질은 고루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3 Q 직업 특성상 밤낮이 바뀐 채 생활합니다. 총수면 시간보다 수면하는 시간대가 피로 해소에 더 중요한가요?
오래 자도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피로가 가중되기도 해요. 우리 몸의 바이올리듬에 따라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는데,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주로 재생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고 피로한 부분을 복구시키는 거죠.

<우먼센스>의 웰니스 서비스 '웰센스'와 함께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여성의 라이프 큐레이션 서비스 '웰센스(WELLSENSE)'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방대한 제품 리뷰를 선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웰니스 체험단 응모, 베스트 리뷰어 이벤트, 전문가 고민 상담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우먼센스> 웰센스와 함께하세요!



<우먼센스>의 웰니스 서비스 웰센스 바로가기

이 겨울을 달콤한 간식과 함께

꽃감, 고구마, 굴. 겨울의 맛이 녹아 있는 디저트를 찾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을 누볐다.



감과당 대표가 추천하는 연희동 맛집

'감과당'의 개성주악이나 약과에 홍차 전문점 '티아레나'의 차를 곁들여 마시길 권합니다. 홍차와 전통 다과가 이루는 조화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장안당

☞ 개성주악 2000원 굴 주악 3000원 꽃감단지 8000원
📍 서울시 서대문구 중가로 24 📷 @gamgwadang

감과당 _ 둥글둥글한 모양의 과자가 그릇에 줄지어 자리 잡았다. '감미로운 과자가 있는 집'이라는 뜻을 품은 '감과당'의 대표 메뉴 개성주악이다. 이름에서 짐작하듯 북한 개성 지방에서 먹던 과자로 잔치나 혼례 때 등장하곤 했다. 성인 주먹보다 조금만 개성주악 하나를 만드는 데 어림잡아 한 시간이다. 우선 쌀가루와 밀가루를 적절히 배합하고 천연 효모 역할을 하는 막걸리를 첨가한다. 둥글게 빚은 반죽을 기름에 잘 튀겨 낸 다음, 증청 과정을 거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개성주악이 된다. 전통 약선 음식 명인 김은정 대표는 쌀 씻는 횟수마저도 주악의 맛과 식감에 영향을 주어 과정 하나도 허투루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영하는 이유예요. 쌀을 씻고, 빵는 작업부터 시작하니 손이 많이 갑니다. 문을 열지 않는 날에도 가게에 나와 주악을 빚어요." 요리의 길을 걸은 지도 어느덧 30년. 그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숙, 잣, 굴, 꽃감, 통팥 등 계절 재료가 들어간 주악을 개발했다. 그뿐이라. 꽃감에 유자청·대추고·호두정과를 넣은 꽃감단지, 생강약과, 화과자까지 손수 만든다. "맛있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이가 떠오르지요. 개성주악, 약과, 꽃감단지, 도라지정과 등으로 구성된 설 세트를 준비했으니 디저트로 마음을 전해 보세요."



TRAVEL TIP

조선 시대 이궁 중 하나였던 연희궁에서 지명이 유래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평온한 동네에 최근 달콤한 바람이 분다.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는 디저트 가게와 카페가 연희동으로 모여 들고 있기 때문이다. 과자를 구워 내는 작은 가게부터 주택을 개조한 대형 카페까지 각양각색이다. 골목을 거닐며 연희동에 깃든 역사의 흔적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장희빈이 사용했다는 우물터, 안산 자락길, 각종 고급 식재료를 취급하는 '사러가마트'나 필름 사진관 '연희동사진관' 등에서 연희동이 거쳐 온 시간을 상상해 본다.



휴먼



알트 대표가 추천하는 연희동 맛집

레트로 감성 가득한 노포 맥주집 '프린스호프'를 자주 방문해요. 경양식 돈가스 등 추억의 메뉴와 맥주의 궁합이 훌륭하답니다.

알트_느릿한 올드 팝과 에스프레소 내리는 소리가 공간을 채운다. 통창 앞에 앉아 고소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마음이 평화롭기 그 지없다. 회색빛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비건 카페 '알트'의 여유로운 풍경이다. 임소라 대표는 휴학 중 우연한 계기로 카페에서 일하다 디저트 세계에 입문했다. 과정이 고되기도 했지만, 어릴 적부터 빵을 사랑해서 그런지 그 시간이 마냥 즐거웠다. 갑작스레 건강이나 빠져 밀가루를 멀리해야 한다는 슬픈 소식에도 굴하지 않았다. 쌀가루 베이킹을 공부하거나 동물성 재료를 식물성 재료로 대체하는 등 계속 연구하고 공부했다. 임 대표의 사랑은 결국 비건에 뿌리를 내린다. 약과 모양이 인상적인 비건 캐러멜 샌드, 두유로 만든 그릭 요거트가 노력의 결과다. 생김새가 꼭 밤톨 같은 밤당시에는 순두부, 백미, 비정제 원당과 아몬드 가루를 조합해 탄생한 메뉴로 다섯 가지 맛 중 통밤을 넣은 보늬밤 맛이 베스트셀러다. 여기에 따뜻한 루이보스 밀크티를 곁들이니 몸이 금세 뜨끈하다. "건강 문제로 식사에 제약이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곳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제작하고 또 나누고 싶어요." 임 대표의 다정함과 정성이 녹아들어있을까. 달콤한 밤당시에 맛이 자꾸만 떠오를 것 같다.



☞ 밤당시에 3800원 루이보스 밀크티 6500원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22 @cafe.alt



고유_이 계절에 빠지면 서운한 작물, 고구마다. '고유'의 고구미 케이크는 카페를 운영하는 부부가 심혈을 기울인 디저트다. 두 사람은 생일에 늘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를 손님에게도 대접하고 싶었다. 이 메뉴의 매력은 고구마 본연의 맛이 온전하게 느껴지는 필링. 전남 해남에서 자란 고구마를 촉촉하게 삶고 일일이 으갠 다음, 꿀을 섞어 당도를 조절한 필링을 직접 구운 케이크 시트 위에 올린다. 반달 모양을 잡은 뒤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생크림을 얹어 케이크를 완성한다. "재료를 구하고 선별하는 것은 물론 제작 과정이 오래 걸리니 비효율적이라며 지인들이 말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애정과 이야기가 담긴 메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구미 케이크는 곧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 이 가게의 메뉴는 늘 유행적이다. 계절에 어울리는 재료를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계절 과일을 듬뿍 담은 머랭 디저트 이튼 매스, 감귤차, 시즌 과일 에이드 등 메뉴판에서 그 흔적이 엿보인다. "손님들이 저희의 고유한 발상으로 탄생한 커피와 디저트를 드시며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뜻에서 상호를 지었어요." 그들의 아이디어로 채운 공간이 더욱 포근하게 느껴진다.



☞ 고구미 케이크 7500원 이튼 매스 7500원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90-1 @cafe_ko.u



고유 대표가 추천하는 연희동 문화 공간

독립 서점 '유어마인드'는 저희 부부가 가장 아끼는 곳이에요. 그림엽서나 연희동 소식을 담은 지도, 다양한 간행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야



나의 강진 문화유산 답사기

그곳 사람만 아는 그곳의 매력을 귀땀한다. 전남 강진군청에서 문화유산 지정과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김자롱 학예연구사가 여행 초대장을 보내 왔다.

GANGJIN



1 산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 월출산에서 누릿재까지

월출산은 강진이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예요. 빼어난 풍광의 근원인 월출산을 바라보며 여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은 누릿재예요. 지금은 터널이 뚫려 자동차로 오가는 이곳은 예부터 강진에서 영암을 지나가는 고개로 노루재라고도 부르던 삼남대로 옛길의 일부입니다. 걸어서 넘어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코스지만 2021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만큼 방문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꾸준히 가고 개발해 더 많은 여행자를 맞이할 예정이에요.

월출산 성전면 월하리, 월남리 일대
누릿재 성전면 월남리 1243

2 차향을 닦은 당신에게

📍 무위사에서 강진 다원까지

이제 우리의 목적지, 풍요롭고 따스한 강진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강진다움'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장소가 펼쳐지지요. 우선 누릿재를 넘은 뒤 신평삼거리 근방의 드넓은 논을 지나 3킬로미터가량 들어가 천년 고찰 무위사에 다다릅니다. 사찰을 정면에 두고 오른쪽 언덕길로 올라 볼까요. 정상에 이르자 이내 강진 다원의 드넓은 자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월출산 자락을 든든하게 버텨 준 차밭이 없었다면, 이 따스한 둔덕은 고만고만한 건물로 가득 찼을 테죠. '자동차 출입 불가'라는 사실도 매력적입니다. 두 발로 월출산과 다원의 경계를 걷는 즐거움이 남다르거든요.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는데, 아마도 월출산의 맑은 정기인가 봅니다. 수백 번 방문해도 갈 때마다 느껴지는 감동을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이 근처만 지나가도 마음이 설렌답니다.

무위사 성전면 무위사로 308
강진 다원 성전면 백운로 일대



[여행 안내자]



김자롱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문화유산팀 학예연구사
"지극히 주관적인 취향을 담아 강진 여행의 정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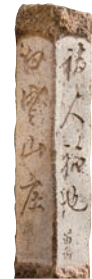


3 신선의 놀이터를 찾는 당신에게

📍 백운동 별서에서 월남사까지

강진 다원 근방에 '비밀의 정원'이라 부르는 백운동 별서가 자리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 경치에 취해 시를 짓고 백운동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을 정도이니,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신비로운 풍경을 꼭 두 눈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금릉 경포대를 지나 월남사로 떠납니다. 월남사 삼층석탑과 진각국사비도 좋지만, 삼층석탑 옆 벤치에 앉아 월출산을 바라보는 기쁨이란 몇 년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한 스님께서 여기 벤치 옆에 서서 월출산을 조망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다가가서 말을 건네니 자리를 선뜻 내주면서 "여기서 자연을 누리시지요" 하시는 겁니다. 스님 말씀처럼 월출산을 감상하는 동안 신선이 된 기분이더군요.

백운동 별서 성전면 월하안온길 100-63
월남사 성전면 월남1길 100



4 강진의 맛이 그리운 당신에게

📍 추어탕과 콩나물국

월남사까지 둘러봤으니 얼추 출출해질 시간이지요. 절집을 나와 13번국도 옆에 위치한 식당 '예촌'을 찾아갑니다. 대표 메뉴는 추어탕과 콩나물국인데, 월출산 자락을 구경한 뒤 먹었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추어탕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도 그 맛에 반할 정도예요. 월출산을 등반하는 사람부터 뜨내기 방문객까지, 한번 맛보면 잊기 어렵습니다. 주인장 부부도 음식 맛에 자부심이 강합니다. 먹는 방법을 일일이 알려 주니 그대로 따라 보세요. 고백하자면, 이걸 먹기 위해 점심시간에 맞춰 출장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예촌 성전면 월남1길 2



5 강진 청자 축제를 방문할 당신에게

📍 고려청자박물관과 강진 청자 축제

이번엔 탐진강을 넘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로 떠납니다. 반대쪽인 다산초당과 철새 도래지도 좋지만 강진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대구와 마량으로 가는 코스는 드라이브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거든요. 절벽에서 강진만을 내려다보는 풍경은 절로 속도를 줄이게 합니다. 빨리 가면 그만큼 손해이니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천천히 강진만을 조망하며 느긋하게 운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길 중턱의 고바우 전망대와 분홍나루 카페를 좋아했는데, 정비 공사로 보지 못해 아쉽네요. 곧 고려청자박물관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고려시대 최고급 청자를 생산한 장소이자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강진 청자 축제가 열리는 주무대입니다. 흥미진진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해 많은 분이 찾아주시지요. 올해도 알찬 볼거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장 부근에서 고려청자 가마터를 발굴하는 현장을 직접 관찰하는 행운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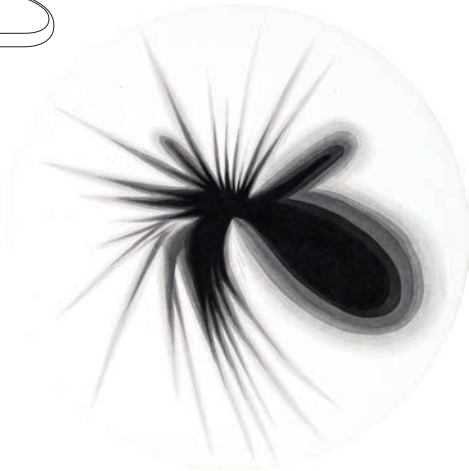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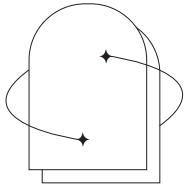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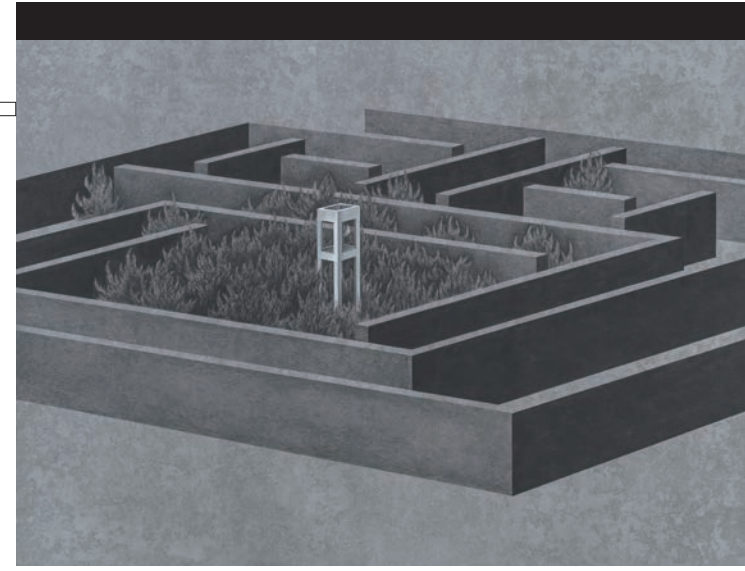
고려청자박물관 대구면 청자촌길 33

6 나만의 은신처를 탐색하는 당신에게

📍 천연기념물 푸조나무와 정수사

축제장 주변에서 놓치면 아쉬울 명소는 천연기념물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입니다. 오래전부터 도공들이 청자를 빚으며 살아온 장소임을 말해 주듯 압도적 기품과 영험한 기운이 깃든 나무거든요. 이제 마지막 목적지 정수사로 갑니다. 사실 봄날 벚꽃이 필 때가 가장 좋지만 겨울에도 남다른 운치를 선사하는 사찰이거든요. 청자촌을 지나 깊숙한 산속에 숨은 이곳은 여전히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장소예요. 땅의 질감이 느껴지는 비포장도로, 당전저수지의 절벽과 우거진 노거수, 쌓인 낙엽과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진 풍경... 강진 여행을 정리하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대구면 사당리 35-4
정수사 대구면 정수사길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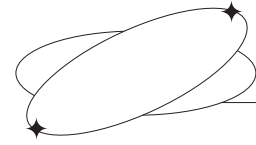
• EXHIBIT •

<2024 전남·경남 청년작가 교류전: 오후 세시>

→ 광양 → 01.30~03.24

신진 작가에서 중견 작가가 되는 과도기에 놓인 전남·경남 출신 청년 작가를 모았다. 감성 빈, 김설아 등 작가 열네 명이 교류와 상생, 협력을 키워드로 한 회화·사진·설치·영상 등 36점을 선보인다. 전시 부제는 프랑스 철학자·작가 장 폴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 중 “세시, 이 시간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항상 너무 늦거나 이른 시각이다”라는 문장에서 인용한 것으로, 수많은 고민을 안은 채 과도기를 보내는 청년 작가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장소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문의 061-760-3242



• EXHIBIT •

<브라이언 아담스 사진전: EXPOSED & WOUNDED>

→ 서울 → 01.12~04.13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성공 가도를 달려 온 캐나다 가수 브라이언 아담스. 가수 이전에 포토그래퍼로 활약했던 그가 15년 동안 촬영한 사진 14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유명 인사를 다룬 '익스포즈드 존'과 전쟁에서 부상당한 장병을 포착한 '운디드 존'으로 나뉜다. 다양한 인물 사진으로 인간의 본성과 화려함의 이면을 표현한다.

장소 서울 전쟁기념관 문의 070-8970-8629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2월 5일~12일)



• EXHIBIT •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

→ 서울 → 2023.12.22~2024.04.14

자연과 불교가 어우러져 생명력 가득한 남인도 미술 세계를 탐구한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공동 개최하는 특별전으로, 남인도 불교미술품 97점을 최초 공개한다. 작품 절반 이상이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 무렵 남인도의 스투파를 장식하던 조각인데, '스투파'는 부처나 스님의 사리를 안치하는 탑을 뜻하는 인도 옛말이다.

장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문의 02-2077-9000





• EXHIBIT •

<가이아의 도시>

● 광주 ● 2023.12.22~2024.02.25

도시에서 공존하는 인간과 식물의 관계를 고민한다. 소리 예술을 연구하는 '2023 ACC 사운드랩' 참여 작가를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시에라리온 작가 11팀이 문체, 회화, 조각, 영상과 인터랙티브 아트, 사운드 아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 22점을 전시한다.

장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문의 1899-5566



• SHOW •

<코리아이모션情>

● 서울 ● 02.16~18

한국인의 정을 발레로 그려 낸다. 국악과 네오 클래식 발레를 결합해 선보이는 공연으로, 2인 무부터 남녀 아홉 커플의 군무까지 다채롭게 펼친다. 한국인의 흥을 담은 '동해 랩소디', 그리워하는 마음을 형상화한 남성 군무 '찬비가', 애절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비연'과 '정선 아리랑' 등 감동을 선사할 무대가 이어진다.

장소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 문의 070-7124-1740



• SHOW •

<슈만>

● 춘천 ● 02.23~24

1853년 독일 뒤셀도르프, 클래식 음악의 거장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 부부 앞에 젊은 천재 음악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나타난다. 세 인물이 얽히고설켜며 벌어지는 3년간의 이야기를 3인극으로 풀었다. 슈만과 브람스의 곡이 물입을 돕는다.

장소 강원도 춘천문화예술회관 문의 033-259-5841



• EXHIBIT •

<라이크 어 드래곤>

● 서울 ● 01.05~03.04

갑진년을 맞아 청룡을 테마로 기획한 전시다.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권용래, 정직성, 이종기 세 작가가 작품 21점으로 용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한다. 강한 붓질로 나타낸 용의 기세, 영롱하게 빛나는 용의 비늘 등에서 힘차고 역동적인 기운을 느낀다.

장소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아트월 문의 02-2118-2971



• FESTIVAL •

제30회 대관령눈꽃축제

● 평창 ● 01.27~02.11

눈꽃축제와 함께 이색적인 겨울을 보낸다. 'TIME TRAVEL IN 대관령, 즐거움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 아래 대관령의 옛 모습을 눈으로 재현한 작품이 돋보인다. 100미터 길이의 너털 안에서 얼음 조각을 감상하고, 어른과 아이 모두 신나게 눈썰매를 탄다.

장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꽃축제장 문의 033-335-3995



안마의자 기술력의 정점 파나소닉 신제품 EP-MAN1

마사지 전문가의 안마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한 파나소닉 안마의자 리얼 프로 시리즈의 신제품, EP-MAN1의 놀라운 기술력을 경험한다.



2024년 새해, 건강한 생활을 다짐한 당신에게 만성피로에 찌든 몸과 마음을 회복할 방법을 제안한다.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재현한 전신 안마의자, 파나소닉 신제품 EP-MAN1을 주목할 때다. 최신 기술을 적용해 목과 어깨, 팔, 허리와 엉덩이, 다리와 발바닥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하이퍼엔드' 안마의자의 탄생이다.



파나소닉 안마의자의 진화, EP-MAN1

1. 마사지 롤러 도달 부위를 확장해 새롭게 개발한 SJ 프레임
2. 몸 전체를 깊게 감싸는 셸 좌석
3. 마사지 전문가의 손놀림을 구현한 리얼 프로 3D 마사지 기법
4. 본체에 블루투스 스피커와 나노이 탑재

편안한 좌석, 한층 넓어진 마사지 도달 영역

신제품 EP-MAN1의 가장 획기적인 진화는 마사지 구동 영역을 확장한 SJ 프레임 적용에 있다. 상하좌우 총 630개 포인트를 감지해 마사지 볼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목부터 척추, 엉덩이에 이르는 신체 부위를 골고루 주무르며 긴장을 풀어 준다. 자사 기존 제품인 EP-MAK1이 총 540포인트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유의미한 변화다. 한결 넓고 편안하게 개선한 좌석도 눈여겨봐야 한다. 셸(shell) 형태로 몸 전체를 온전히 감싸는 디자인은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휴식에 쉽게 몰입하도록 돕는다. 130도에서 170도까지 등받이를 기울이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신체 상태에 맞는 최적의 자세를 찾아 준다. 사용자의 키에 따라 조절 가능한 발판, 폭신하고 아늑한 탈착 쿠션 등 완벽한 이완의 시간을 위한 디테일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궁극의 휴식을 위한 최신 스마트 기술

상하, 좌우, 전후로 부드럽게 작동하는 3D 입체 마사지 볼은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력의 총체다. 초당 신호를 2000개 전송해 모터 움직임을 자유롭게 제어하는 PFC 엔진 II와 회전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 마사지 볼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졌고, 이로써 보다 다양한 마사지 기법을 구현해 냈다. 세라피스트의 노련한 손놀림처럼 약 1센티미터 간격으로 회전하는 네 개의 마사지 롤러 또한 섬세하고 꼼꼼한 마사지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다. 본체에 내장한 블루투스 오디오와 USB 충전 포트를 이용해 음악을 곁들이니 휴식이 더 감미워지고, 일상은 더 즐거워진다.

파나소닉 신제품 EP-MAN1 출시 기념 이벤트

1 **고객 사은품 스티م 청소기 MC-S5W 증정** 우수한 성능과 간결한 디자인으로 사랑받아 온 고온 살균 스티م 청소기 MC-S5W와 50만 원 상품권을 신제품 EP-MAN1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기간 2월 1일~29일

2 **설문 참여 이벤트** 백화점과 파나소닉 프라자에서 신제품 EP-MAN1을 체험한 후 설문에 참여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기간 2월 1일~29일

3 **사용 후기 영상의 주인공을 찾아서** 신제품 EP-MAN1 구매 고객의 소중한 사용 후기를 인터뷰 영상으로 기록해 파나소닉 유튜브 및 소셜 미디어 채널과 매장에서 공개한다. 주인공에 선정되면 340만 원 상당 안마의자 EP-MA22를 제공하니, 가까운 파나소닉 매장에 문의해 보자.

문의 www.panasonic.co.kr

경험하지 못한 절대휴식 REAL PRO MAN1



1 MAN1 출시 이벤트

- MAN1 제품 구매고객,
고온 살균 스티م 청소기
MC-S5W + 50만원 상품권 선착순 증정
- 2024.2.1 ~ 2024.2.29

2 MAN1 설문 참여 이벤트

- 백화점 및 파나소닉 프라자에서
신제품 MAN1을 체험 후 설문에 참여하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2024.2.1 ~ 2024.2.29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철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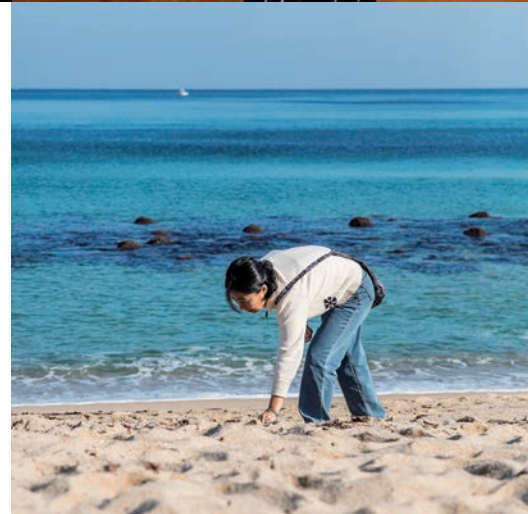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본점 (02)542-8452 서울 서초구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서울 중구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부산 수영구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대구 북구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대전 서구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1-8452 대구 중구 | 파나소닉 중원프라자 (051)255-0222 부산 중구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부산 동구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광주 북구 | 파나소닉 천안프라자 (041)522-8452 천안 동남구 | 롯데 백화점 본점 9층 (02)726-4545 서울 중구 | 롯데 백화점 잠실 10층 (02)2143-7793 서울 송파구 | 롯데 백화점 강남 8층 (02)531-2045 서울 강남구 | 롯데 백화점 일산 8층 (031) 909-3091 경기도 고양시 | 롯데 백화점 센텀 7층 (051)730-3330 부산 해운대구 | 롯데 백화점 대전 B1층 (042)523-5322 대전 서구 | 롯데 백화점 광주 9층 (062)-221-1932 광주 동구 | 롯데 백화점 무역센터 4층 (02)3467-8348 서울 강남구 | 현대 백화점 목동 B1층 (02)2163-1843 서울 양천구 | 현대 백화점 판교 7층 (031)5170-1835 경기도 성남시 | 현대 백화점 여의도 5층 (02)3277-0581 서울 영등포구 | 현대 백화점 대구 7층 (053)-245-2730 대구 중구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10층 (042)720-6050 대전 서구 |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신관 2층 (02)310-1678 서울 중구 | 신세계 백화점 강남 9층 (02)3479-1628 서울 서초구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8층 (031)8082-0854 경기 의정부시 | 신세계 백화점 대구 7층 (053)661-6723 대구 서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7층 (051)745-2389 부산 해운대구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지하1층 (042)607-8659 대전 유성구



강릉 Gangneung



강릉을 사랑한 얼굴들



강원도 강릉의 산과 바다, 문화유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 도시에 싱그러운 숨결을 불어넣은 크리에이터 4인이 우리의 걸음을 안내한다.



강릉에 닿을 때마다 이 짧은 시를 생각한다. “늦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 고향을 향한 애뜻함, 기구하고도 험준한 대관령 고개의 풍광이 녹아 흐르는 글줄. 서른여덟의 사임당이 산마루에서 쓴 ‘유대관령망친정’이다. 강릉이란 도시의 질감과 정서, 시간과 거리 감각을 이처럼 절묘하게 드러낸 문장이 또 있을까 싶다.

철길과 고속도로가 놓이기 전 강릉은 사임당이 썼듯 아득히 먼 고장이었다. 오죽하면 과거 이곳 사람들은 대관령을 넘어갈 일 없이 평탄하게 살다 간 이들을 행운아라고 여길 정도였다.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불과 2시간 만에 주파하는 시대. 수많은 이를 압도하고 또 사로잡았던 강릉의 옛 관문, 대관령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다. 장엄한 회청색 능선이 저 멀리서 파도치듯 아물거린다.

자연의 소리에 응답하는 시간

대관령은 영동과 영서, 강릉과 평창에 걸친 분수령이다. 이번 여정의 첫 경유지는 강릉의 서쪽 끝, 성산면 어흘리에 자리한 작은 은신처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성산면입니다.” 환대 어린 표지판을 지나자 눈앞에 보이는 건 온통 숲, 숲뿐이다. 그로부터 10분을 더 들어가 ‘들음리 소향’에 다다른다. 첩첩산중 자연에 파묻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삶을 꾸려 온 최소연 대표가 낯선 객을 살갑게 마중한다. “잘 오셨어요. 이곳은 대관령 아흔아홉 굽이를 넘어 100번째 고개에서 만나는 가상의 마을이자, 몸과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웰니스 코스를 경험하는 장소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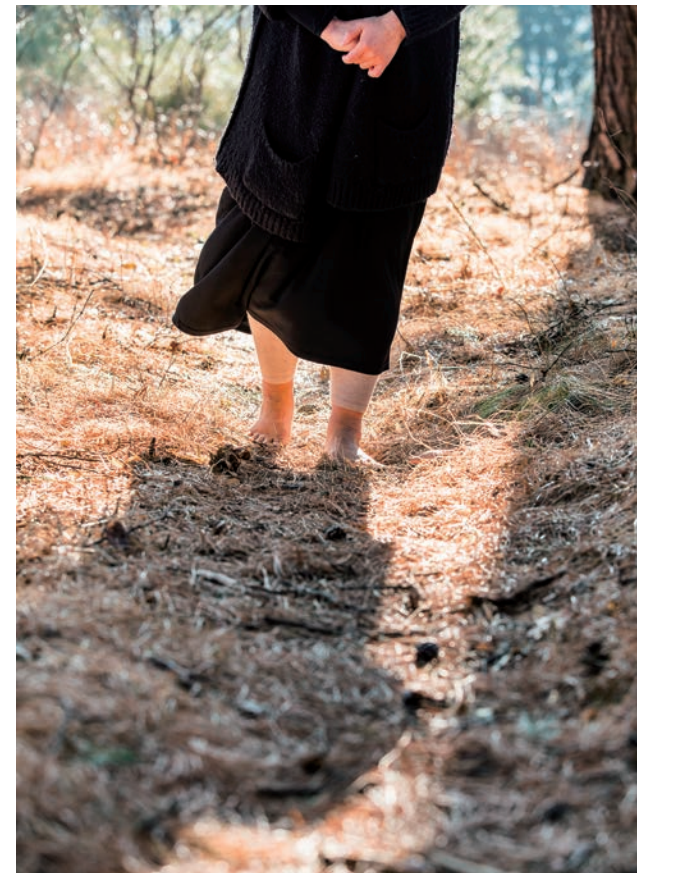
우선 과로로 점철된 일상의 묵은때를 씻어 내기로 한다. ‘대지의 걸음’은 들음리 소향 인근에 펼쳐진 숲에서 맨발 걷기와 나무 끌어안기, 명상 등으로 이루어지는 어상을 체험하는 코스다. 산은 깊고 숲은 넓으니, 산책길은 계절과 날씨에 맞추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들음리 소향은 성산면 어흘리에서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문의와 시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sohyang_lab



어 매년 달라진다. “이곳은 100년 전에 씨를 파종해 조림한 솔숲이에요. 예부터 집 짓는 데 쓰던 소나무가 보기 좋게 자라 울창한 녹음을 이뤘어요.” 최 대표가 이끄는 대로 밭 벗고 숲길을 걷는다. 걸음마 하듯 한 발짝씩 조심스레 지면을 디더 본다. 바닥에 깔린 폭신한 솔잎이 낮설고도 기분 좋은 자극을 준다.

“나고 자란 강릉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우연히 타이 치앙마이에서 트레킹 여행을 하고 돌아와 인생을 재정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도시 생활을 정리한 뒤엔 강원도 화천과 평창에서 머물며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도하기도 했죠.” 끝내 대관령 자락에 생활을 의탁한 그는 단출하고 고요한 삶을 꿈꾼다. “자연에서 태어났으니 자연으로 살고 싶어요.” 숲 내음 같은 말마디를 선물 받은 순간. 우리가 끌어안은 아름다드리 소나무에 환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는다.



차곡차곡, 정신과 육체를 고양하다

이제 대관령 정기가 깃든 몸을 온기로 어루만질 차례. ‘음미하는 소향달: 차곡차곡’은 최 대표가 손수 뒤고 빚은 두 잔의 차와 두 잔의 술을 번갈아 마시면서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감각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다. 바지런히 움직이던 그의 손에 찻잔과 술잔이 들린다. 진피차와 ‘소향 약주’, 돼지감자말차와 ‘소향 탁주’의 향내가 코끝을 간질인다. “제게 술 빚는 일은 전통을 복원하고 자연을 순환하는 과정이에요. 이 술에 들어간 쌀은 강릉 사천면에서 옛 방식을 따라 햇볕과 해풍만으로 말려 가공한 거예요. 쌀, 물, 누룩으로 술을 만들고 남은 지게미는 농사를 돕는 소 일곱 마리의 양식이 되지요. 알고 보면 모든 단계가 하나로 이어진 셈이에요.” 목구멍을 타고 차향이, 술 기운이 온몸으로 스민다. 결들리로 나온 연근, 무, 떡의 담백한 맛이 풍미를 돋우니 언 뺨이 스르르 녹는다. “사찰에서는 술을 ‘곡차’라고 불러요. 술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균이자 약이에요. 정월대보름에 복쌈을 먹고 귀밝이술을 마시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연에서 충전한 기운 덕일까. 강릉의 맹렬한 겨울 앞에 감히 맞설 용기가 샘솟는다.

“자연에서 태어났으니 자연으로 살고 싶어요.”



“제게 술 빚는 일은 전통을 복원하고 자연을 순환하는 과정이에요.”





#sustainability

바다는 하늘의 거울이다. 강문 바다가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하늘을 투영하는 오후, 백사장 뒤꼍 골목에 자리한 공방 겸 소품 숍 '유리알유희'의 주인장 이경화 대표는 가방을 둘러메고 산책을 나선다. 그가 눈을 반짝이며 찾아 헤매는 것이 있으니, 이름하여 '바다유리'다. 바다에 흘러든 폐유리가 모래와 물살에 마모되면 석회와 탄산나트륨 성분이 녹아 반투명한 우윳빛으로 바뀐다. 바다유리는 이처럼 오랜 시간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거친 유리 자원을 뜻한다. "날카롭고 위태로운 유리가 몽툭하고 따스한 질감을 지닌 바다유리로 변한다면, 참 신기하죠? 누군가에겐 쓰레기였을 테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보석처럼 예쁘다는 사실도요." 세월의 풍파를 견뎌 내고 운명을 거스른 바다유리의 매력이야 보석보다 단단할 테다.

바다의 위로가 당신에게 닿기를

프랑스 니스의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바다유리를 만난 이 대표는 고운 빛깔과 촉감에 홀려 공예를 시작했다. 고향인 강릉에 귀촌해 유리알유희를 차리고 작업을 이어 나가던 그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정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바다유리를 알리는 작은 전시관을 꾸렸다. 여기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강릉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바다유리 색깔은 옅은 청자색이다. 한때 강원도 지역 소주로 유통한 '경월소주'의 영향이다. 프랑스에서는 포도주를 담던 짙은 갈색 유리병 조각이 자주 나온다고 하니, 흥미롭고도 씩씩한 이야기다. 최근엔 비치 코밍, 즉 일부 해양 표류물을 공예 소재로 재활용하는 일이 널리 유행하면서 바다유리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 대표의 수집 노하우는 비 온 다음 날, 썰물 시간을 공략하는 것. 살뜰히 모은 바다유리는 공방 안쪽 작업실에서 바다와 모래와 바람의 빛깔을 담은 작품으로 거듭난다. "이곳엔 혼자서 바다를 보러 오는 여행자가 많아요. 삶의 중요한 분기점에 놓인 이들에게 바다의 위로가 닿기를 바라요. 날씨가 계절에 구애되지 않고, 여기서만은 저마다 보고 싶었던 바다를 만났으면 해요."



바다유리 공예를 선보이는 공방 겸 소품 숍 유리알유희는 '강문해변 노란 집'으로 유명하다. 아기자기한 공예품과 바다유리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the_glass_bead



“삶의 분기점에 놓인 이들에게
바다의 위로가 닿기를 바라요.
날씨나 계절에 구애되지 않고,
저마다 보고 싶었던
바다를 만났으면 해요.”



“할머니 손맛과 강릉의 풍미를 살렸어요.
강릉 딸기를 토핑한 유자 양갱과
씀바귀 정과를 올린 쌀튀밥 파베 초콜릿까지
하나하나 공들여 만들었죠.”



#local_specialty



별 좋은 사천 땅에서 길러 낸 쌀은 예부터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사천 한과마을 안에서도 솜씨 좋기로 이름난 최씨 가문 여인 최현철은 1939년 이곳에 방앗간을 개업한다. 먼 훗날, 어머니의 손맛을 지키고 싶었던 아들 김남대 대표와 그의 아내 조미영 대표가 선미한과를 창립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3대 김성래 대표와 김지혜 실장은 전통을 고수하는 집념, 동시대 감각에 대한 포용력으로 가업을 계승하고 있다.

착한 재료로 아름답게 만든 한과

은은한 유과 빛깔 외관이 눈을 사로잡는 선미한과 건물에 들어서면 통창 너머로 한과 제조 공정을 맞닥뜨린다. 설비와 위생 장비는 현대화했으나 모든 작업을 여전히 손으로, 옛 방식 그대로 해내는 모습이 묘한 감동을 안긴다. 이곳 제품은 자연 발효시킨 백옥찰을 콩물로 반죽해 고소하면서도 그윽한 풍미를 살리고, 무쇠 가마솥에서 네 시간가량 반죽을 저어 전분을 균일하게 호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찜기로 가마솥 역할을 대체한 공장형 납품 업체와 대별되는 지점이다. '착한 재료로 아름답게 만든 한과'라는 슬로건에 부응하기 위해 바탕을 신중하게 재단하고, 신선한 기름으로 건조한 바탕은 유당해 부풀린 뒤 조청으로 버무려 건강한 단맛을 더한다. 여기에 바다, 해당화, 연꽃 등 강릉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패키지까지 입혀 갈무리한다.

얼마 전부터 선미한과는 전통 한과에 서양식 디저트 기법을 접목해 차와 한과 차림상을 선보이는 '라운지 시시호'를 운영 중이다. 한국 다과의 미감을 만끽하는 것은 물론, 선미한과의 전통과 유산이 새로운 시대를 만나 어떻게 진화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다. 김지혜 실장은 맞이차와 한입 유과, 디저트 한상 차림을 정성 어린 손길로 내어 준다. "할머니 손맛과 강릉의 풍미를 떠오르게 하는 요소를 곳곳에 넣어 보았어요. 강릉 딸기를 토핑한 유자 양갱은 물론, 강릉 오미자 소르베와 썸바귀 정과를 올린 쌀튀밥 파베 초콜릿까지 어느 하나 공들이지 않은 게 없어요." 과연 세월과 유행을 비켜 간 강릉의 참맛이다.



선미한과는 사천 한과마을에서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강릉의 맛을 계승하고 있다. 티와 한과 디저트 페어링을 제공하는 라운지 시시호는 선미한과의 새로운 시도다. @sunmi_hangwa_official





#cultural-heritage

강릉에는 산과 바다, 호수와 숲, 그리고 우리 인류가 힘을 모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다. 바로 강릉단오제와 강릉관노가면극이다. 늦봄과 초여름 사이, 남대천 변의 녹음이 한껏 무르익을 즈음 강릉은 축제의 흥취와 신명에 휩싸인다.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단오제는 한국 최대 행사 규모를 자랑한다. <홍길동전> 작가이자 강릉을 대표하는 문인인 허균이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펴낸 문집 <성소부부고>에 따르면, 그 또한 계묘년 5월 초하룻날 명주(오늘날 강릉)에 머무르면서 대관령 산신을 맞는 연회를 감상하며 즐겼다. 이때의 연회를 강릉관노가면극의 원형으로 추정한다.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오른 한국의 탈춤 18종목 중 하나이자 국가무형문화유산인 강릉관노가면극은 단오제례, 단오굿과 더불어 강릉단오제의 주축을 이루는 의식이다. 이름처럼 탈놀이를 이끄는 주체는 관아의 노비였다. 국사 성황신을 봉안한 성황당 앞에 선 이들은 장자마리, 양반광대, 소매각시, 시시딱딱이라는 인물이 되어 다섯 과장에 걸친 춤과 소동을 해학적으로 선보여 왔다. 흥미로운 사실은 연회 전체가 무언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강릉관노가면극은 몸짓 언어의 원초적 쾌감으로 가득한 탈놀이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강릉의 얼굴

경포 바다는 강릉관노가면극의 역사적 실체를 기록한 허균의 생가 터와 맞닿아 있다. 이곳에서 강릉관노가면극의 현재를 이끄는 얼굴을 만났다. 탈을 쓴 채 행드림을 연주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



<KTX매거진>×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강원도 강릉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드립니다.

- * 2024년 2월 3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강릉단오제와 강릉관노가면극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의 자랑이다. 김문겸 이수자의 SNS 계정에서 다양한 공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nsrua84



시딱딱이, 김문겸 이수자다. 고등학교 시절 강릉 관노가면극에 입문해 지금까지 전통 연희자의 길을 걸어온 그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퍼트리는 열망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예술가다. 예순에서 일흔에 이르는 관노가면극보존회 구성원 사이에서 청년기를 보냈기에 누구보다 교육과 전승, 대중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그다. 대학원에서 국악교육을 공부하며 탈춤은 물론 다양한 예술 장르를 섭렵한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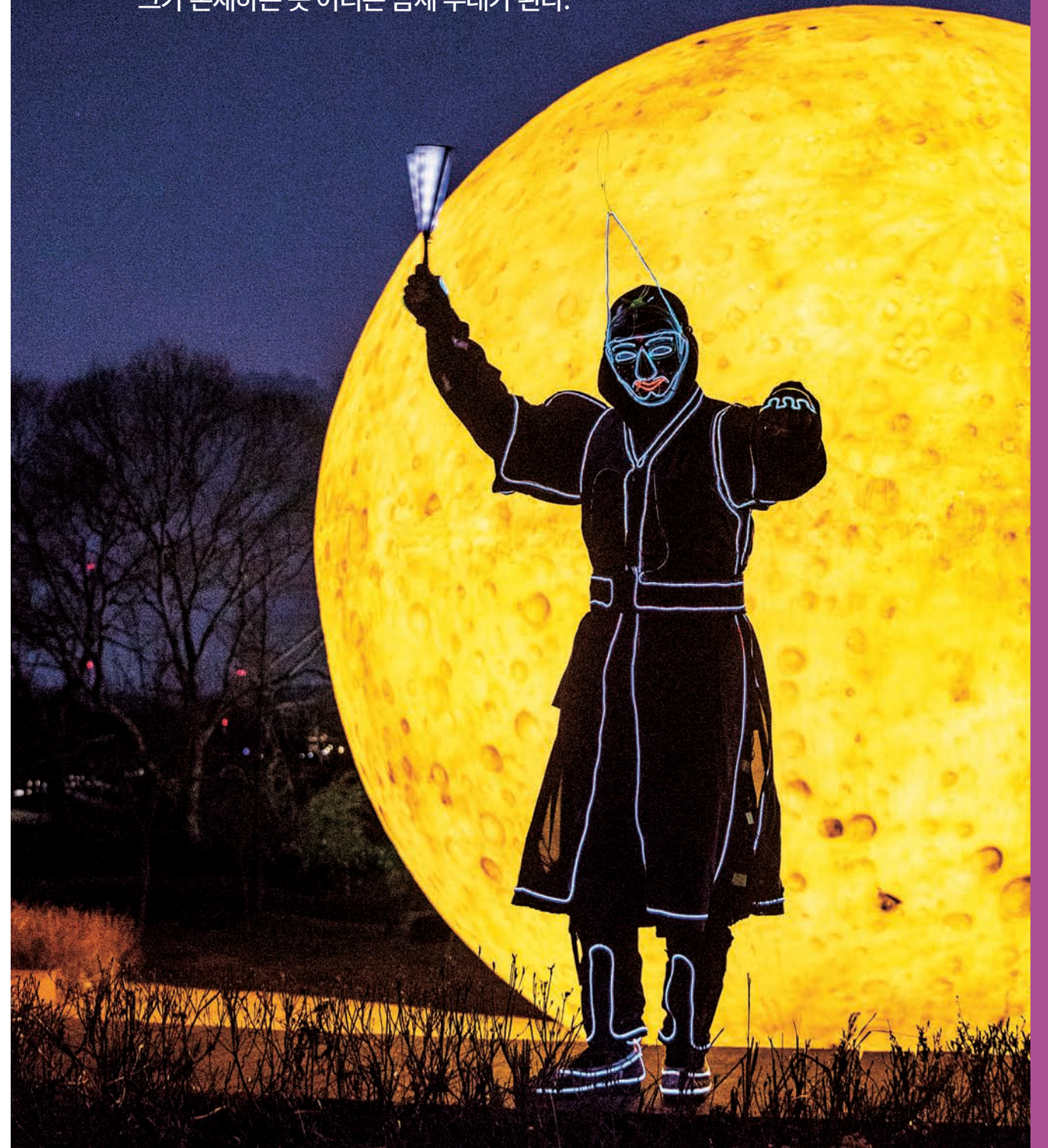
김문겸은 무대에서 관객을 기다리지 않는 공연가다. 그는 벚꽃이 만발한 경포대에서, 어둠이 내린 월화거리에서, 인적 드문 노암터널에서 퍼포먼스를 펼쳐 보인다. 춤과 음악이 발산하는 특별한 기운에 관객이 모여드니, 김문겸이 존재하는 곳 어디든 금세 무대가 된다. “제가 의도한 대로 관객이 반응할 때 희열을 느껴요. 버스킹 공연을 통해 관객을 찾아가는 이유예요.” 그는 또한 전통을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는 전방위 아티스트다. 무연극이라는 강릉관노가면극의 특징을 활용해 농인 학생들과 교류하거나, 핸드럼 연주에 국악을 접목해 실험적인 퍼포먼스를 시도한다. 핸드럼의 풍부한 음감이 궁극하다면, 강릉의 공연 예술 구심점인 명주예술마당에서 2월 중 열리는 그의 공연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춧불 200개를 켜 채로 핸드럼을 연주할 예정이에요. 음악에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감응할 거예요.”

그의 최종 목표는 기술과 예술을 아우르며 이 시대와 소통하는 것. “2021년 강원문화재단 신진 예술가 지원 사업을 계기로 일인극 LED 탈놀이를 구체화했어요. 하나의 탈과 의상으로 강릉관노가면극 등장인물 넷을 형상화하도록 LED 배선 작업을 했고, 스위치를 바꿔 가며 모든 역할을 연기하는 거죠.” 경포호 산책로에 둥실 뜬 거대한 달 조명 앞에서 LED 탈을 쓴 김문겸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양반광대의 거만한 얼굴이 금세 시시딱딱이의 해학적인 표정으로 바뀐다. “제가 몸담았던 공연 제목 중 하나가 ‘술술탈탈’이에요. 기술과 예술을 더한 탈을 쓴 채, 탈 난 걸 털어 버리자는 의미예요.” 마침 쾌청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훌훌 건들거린다. 술술탈탈, 덩실덩실, 희희낙락. 황홀한 달밤이 흐르고 있었다. **㉠**

김문겸은 무대에서 관객을 기다리지 않는 공연가다.

그는 벚꽃이 만발한 경포대에서, 어둠이 내린 월화거리에서, 인적 드문 노암터널에서 자연스럽게 퍼포먼스를 펼쳐 보인다.

춤과 음악이 발산하는 특별한 기운에 관객이 모여드니, 그가 존재하는 곳 어디든 금세 무대가 된다.





The mountains, seas, and cultural heritage of Gangneung in Gangwon Province are viewed through a fresh perspective. Four creators who have infused a refreshing breath into this city will guide our steps.

Before the railroad and expressways were laid, Gangneung seemed like a distant land. Today, it is a mere two-hour journey from Seoul Station to Gangneung Station on the KTX. We embark on a path to rediscover the former gateway of Gangneung, the majestic Daegwallyeong, which once overwhelmed and captivated countless souls.

Responding to the Sounds of Nature

Daegwallyeong spans the regions of Yeongdong and Yeongseo, as well as Gangneung and Pyeongchang. The first stop on this journey is Eoheul-ri in Seongsan-myeon, a small sanctuary located at the western end of Gangneung. Here, we are given a warm welcome by Choi So-yeon, the representative of Deuleulri Sohyang, who has been running healing programs in nature. The “Steps of the Earth” program unfolds in the nearby forest of Deuleulri Sohyang, featuring activities such as barefoot walking, tree hugging, and meditation. As the mountains are deep and the forest vast, the

walking paths vary with each season and weather condition. “Pine seeds were planted here a hundred years ago, and they have since grown into a lush forest.” explains Choi. Following her lead, we remove our shoes and walk along the forest trail. Each careful step on the soft pine needles provides an unfamiliar yet pleasant sensation.

Finding Comfort in the Sea

Lee Gyeong-hwa, the founder of The Glass Bead, was captivated by the delicate colors and textures of sea glass when she visited the beaches of Nice, France. Upon returning to Gangneung, she opened The Glass Bead studio and honed her craft. In 2021, she was selected as a Local Creator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he set up a small exhibition space to showcase sea glass,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Recently, sea glass has garnered attention thanks to the growing popularity of beachcombing, that is, recycling marine debris as crafting materials. Lee’s expertise

lies in strategically collecting sea glass during the ebb tide after a rainy day. She then transforms the carefully gathered sea glass into works of art in her studio, capturing the hues of the sea and sand. She says, “This place attracts many solo travelers who are looking for some seaside solitude. I hope for those at important junctures in their lives to find comfort in the sea, regardless of weather or season.”

Hangwa Made With Good Ingredients

Sunmi Hangwa is creating a new boom in Sacheon Hangwa Village. Through the large glass windows, you get to watch how traditional hangwa (Korean sweets) is made. While the equipment and hygiene facilities have been modernized, the craftsmen continue their work by hand in the old-fashioned way, evoking a unique sense of awe. Every product here is made by fermenting white glutinous rice in soybean water, creating a savory yet subtly flavorful dough. The dough is then stirred for around four hours in a cast iron pot, ensuring a uniform and rich consistency. Adhering to the slogan of “Hangwa Made Beautifully With Good Ingredients”, the base is carefully cut and dried in fresh oil. After puffing up, it is coated with grain syrup for a boost of healthy sweetness. Recently, Sunmi Hangwa has



been operating Lounge Sisiho, where traditional hangwa meets Western dessert techniques. Don’t miss the chance to satisfy your sweet tooth, and at the same time, explore how Sunmi Hangwa’s tradition and heritage have evolved in the new era.

The Timeless Face of Gangneung

Gyeongpo Beach is near the birthplace of Heo Gyun, mentioned in historical documents as the origin of Gangneung’s Gwanno mask drama, recogniz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im Mun-kyeom, who plays the hangdrum while wearing a mask, is the master leading the present of Gangneung’s Gwanno mask drama. He is not a performer who waits for the audience on stage. His performances unfold at various locations, such as Gyeongpodae Pavilion in spring, Wolhwa Street in the evening, and even the less-visited Noam Tunnel. A special energy emanates from the dance and music, and audiences naturally gather around Kim. However, he is not just an artist who preserves tradition; he goes beyond, showcasing a one-person play where he transforms into all four characters of the Gwanno mask drama by switching LEDs on a single mask and costume. Kim, wearing his LED mask, begins to dance on the promenade of Gyeongpoho Lake. The whimsical dance creates an enchanting atmosphere on this moonlit night. 🌕



강릉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즐길 거리



대관령박물관 아흔아홉 굵이 대관령 초입에 우뚝 선 붉은 벽돌 건물이 눈길을 끈다. 고미술 수집가 홍귀숙 선생이 수집한 유물을 기반으로 1993년 설립한 대관령박물관이다. 고인돌 모양을 본뜬 독특한 외양으로 강원도 건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좌청룡, 우백호로 구성된 전시관은 백호, 현무, 토기, 청룡, 우리, 주작 등 여섯 개 방으로 이어진다. 토우, 목기, 백자, 민화 등 선사시대부터 근대사에 이르는 희귀 유물 2000여 점을 소장해 방대한 전시를 자랑한다. 외딴 장소, 낯선 건축물에서 예상치 못한 미적 감흥을 만끽하는 시간이다.
문의 033-660-3830



여행자 플랫폼 강릉수월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하도 많아 어디부터 가야 할지 난감한 강릉 여행. 다양한 선택지를 하나하나 짚어 보며 합리적인 여정을 설계하고 싶은 이에게 여행자 플랫폼 강릉수월래가 훌륭한 해답을 제공한다. 강릉원주대학교 정문 근처에 자리한 옛 유전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여행 명소와 숙소, 식당 등을 소개하는 다종다양한 책자를 비치해 정보를 망라한 것은 물론 걸음을 쉬어 갈 수 있는 의자와 탁자도 넉넉히 마련해 두었다. 두 박이 여행자라면 이곳에서 제공하는 무료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겠다.
문의 033-643-5618

먹거리



호텔 오브 솔트 75년 전에 세운 옛 공장 건물이 다이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조부모님과 유년 시절을 보낸 강릉에 남다른 애착을 가진 배진희 대표는 서핑을 하러 동해안을 즐겨 찾다가 강릉에 정착, 2022년 늦가을에 '호텔 오브 솔트'를 열었다. 강릉 하면 생각나는 감자를 쪄켜이 넣어 맛을 낸 '감자냐'가 대표 메뉴다. 감자를 사용한 또 다른 메뉴 '머시룸 크림 뇨키'도 고소하고 농밀한 향으로 사랑받는다. 동해안에서 공수한 무늬오징어를 수비드해 질감을 살린 '루콜라 무늬오징어 샐러드'를 곁들이면 산뜻한 강원도식 테이블이 완성된다.
문의 070-8287-0223



주룩주룩 양조장 중앙시장 뒷골목 점집 거리에 심상치 않은 가게가 하나 있다. 강릉 구름신을 섬기며 술을 빚는 '주룩주룩 양조장'이다. 세 명의 청년 양조자가 의기투합해 '떠먹는 막걸리'를 선보이는데, 마치 강릉 바다 위 구름처럼 보드랍고 달콤한 풍미를 자아낸다. 딸기, 블루베리, 꽃감, 커피, 기분의 다섯 종류를 구비해 골라 먹는 즐거움도 안긴다. 마시는 막걸리 '룩주룩주 파사'의 존재감도 오롯하다. 제품명을 거꾸로 읽으면 사파 주룩주룩. 정파 떠먹는 막걸리를 배격하는 급진적인 제품이다. 커피와 코코 파인, 두 가지 맛으로 출시한다.
문의 0507-1339-7657



밸런타인데이, 마음을 전하는 카카오리퍼블릭 수제 초콜릿

소중한 이에게 한국 대표 수제 초콜릿 카카오리퍼블릭을 선물할 시간이다. 쇼콜라티에의 손길이 닿은 고급스러운 초콜릿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 본다.

매혹적인 맛, 신비로운 힘을 지닌 초콜릿은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특별한 선물로 자리매김해 왔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특별한 선물을 찾는 이라면 초콜릿 전문 기업 씨앤지의 프리미엄 브랜드 카카오리퍼블릭 제품을 주목할 때다. 부동의 베스트셀러 네티플레저 16구, 좋은 재료의 조화로운 향미와 단단한 질감이 매력적인 벨기에 초콜릿 스틱 10구, 핑크빛 사랑을 형상화한 분홍색 하트 모양 초콜릿이 인상적인 벨기에 스위트하트 8구와 16구, 기존 네티플레저 16구의 원재료를 다양하게 업그레이드한 네티플레저 20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신제품 출시 공정에 OEM이 아닌 직접 제조 방식을 채택한 카카오리퍼블릭은 HACCP 인증 초콜릿 전용 제조 시설을 완비했다. 호주와 벨기에 등지에서 전문 교육을 수료한 수석 쇼콜라티에가 직접 레시피를 설계하고, 원료 선별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제조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한다. 한 차원 높은 미식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카카오리퍼블릭은 쿠팡·마켓컬리·오아시스 등에서 새벽 배송으로 편리하게 구매 가능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 플랫폼과 자사 초코헬스몰을 이용하면 메시지 카드와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카카오리퍼블릭 수제 초콜릿 구매하기
chocohealth.co.kr(초코헬스몰)
smartstore.naver.com/chocohealth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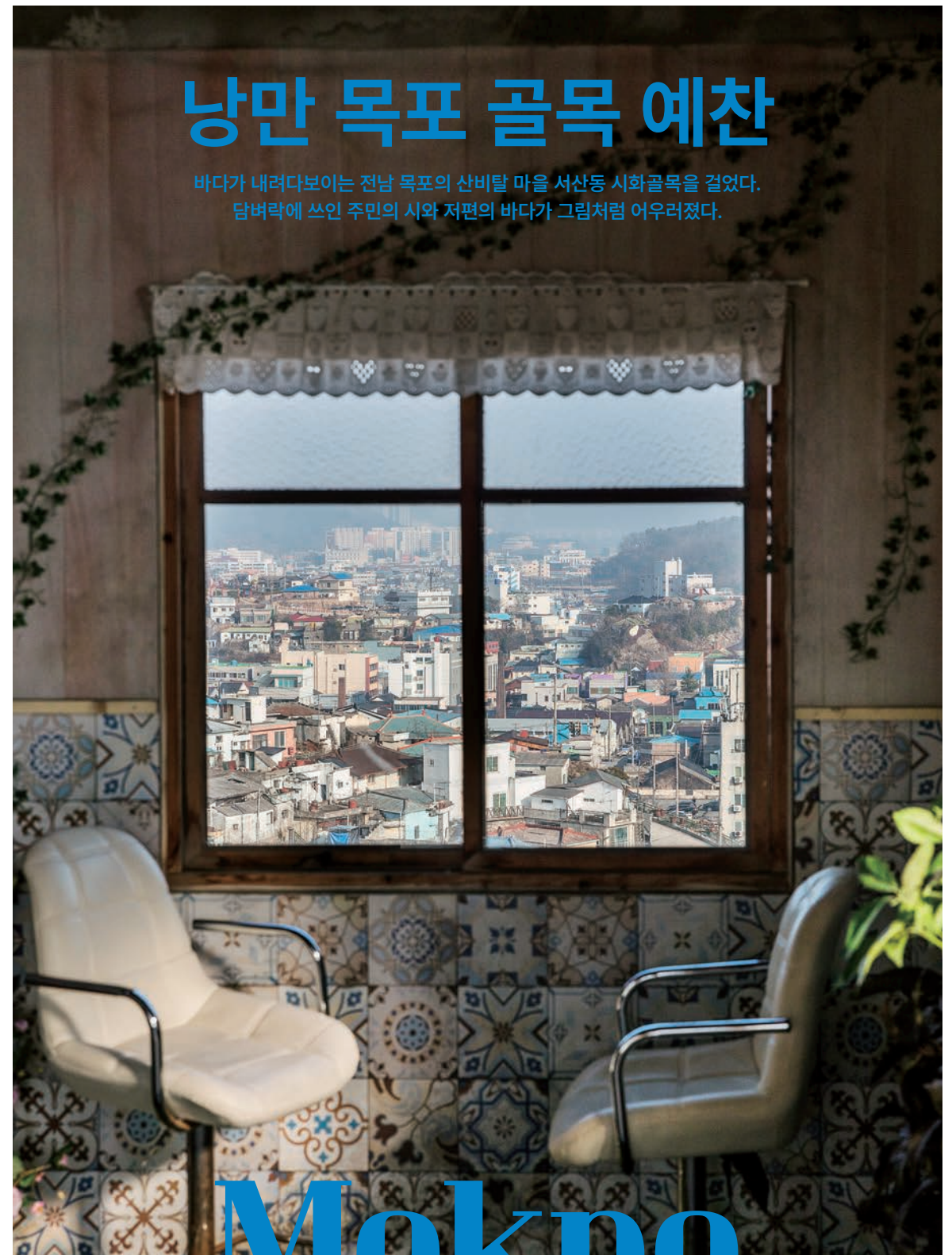
주식회사 씨앤지

2017년 설립한 주식회사 씨앤지는 초콜릿 원재료인 양질의 카카오 빈을 페루 등 현지 농장에서 직접 공수해 로스팅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총괄하는 '빈투초콜릿(Bean to Chocolate)' 방식을 갖췄다. 단백질 강화 초코볼, 무설탕 스테비아 초콜릿, 공정무역 빈투초콜릿 등을 출시해 한국 초콜릿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문의 cngcorp.co.kr



낭만 목포 골목 예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남 목포의 산비탈 마을 서산동 시화골목을 걸었다.
담벼락에 쓰인 주민의 시와 저편의 바다가 그림처럼 어우러졌다.



Mokpo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계단을 오르다 뒤를 돌았다. 아, 바다다. 몇 걸음 더 걷고 다시 돌아섰다. 낮은 지붕이 어깨 맞대고 이어지는 마을 너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인다. 가슴이 뛰었다. 지금 누군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바다가 어디냐 묻는다면 비탈진 골목 사이로 보이는 바다라고 답하겠다. 바다와 골목과 마을, 여기는 항구도시 목포다.

서산동 시화골목은 2015년 목포대학교와 지역 예술가, 주민이 합심해 이 마을 이야기를 담아 시화전을 열면서 현재 모습으로 단장하기 시작했다. 사투리까지 살린 주민의 시가 목포만의 감흥을 전한다. 초입에는 영화 <1987>을 촬영한 연희네슈퍼가 있다.

삶과 바다의 골목, 서산동 시화골목

KTX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다. 어찌나 빠른지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를 2시간 30분 만에 주파하고 호남선 종착역에 여행객을 내려놓는다. 남쪽은 남쪽이라, 서울의 아침과 목포의 아침은 피부에 와 닿는 온도가 벌써 다르다. 겨울날 남도의 햇살과 공기가 선물처럼 다가온다. 면적 50.65제곱킬로미터. 605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서울과 비교해 아담한 규모의 목포는 그 작은 땅에 갈 곳과 먹을거리를 짝짝 채운, 여행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도시다. 이전의 여행도 풍경과 음식에 푸근

한 목포 사람까지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했기에 계획할 때부터 설렸다. 우선은 바다가 그리웠고, 영혼이 머물러 '영달산'이라고도 불렀다는 유달산도 욕심났으며, 파란만장한 근현대사 속에서 따스한 인간미를 간직해 온 사람의 이야기도 만나고 싶었다. 그렇게 고른 곳이 서산동 시화골목이다. 목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유달산 자락에 집들이 서로 이고 지고 들어서 마을을 이루었다 했다.



출발점은 영화 <1987>에 나온 연희네슈퍼다. 비탈진 동네 아래쪽, 초록 간판 슈퍼가 여행객을 맞는다. 드르륵 미닫이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30여 년 전으로 이동한다. 옛 담배 같은 실제 물품과 광고 포스터가 슈퍼 안의 달력을 1980년대 어느 날로 돌려놓는다. 추억이 있는 이는 추억을 떠올리고, 이런 물건과 슈퍼 자체가 생소한 이는 과거를 생생하게 상상하겠다. 자료 사진으로나 남은 한 시절을 다시 현실에서



맛닥뜨리는 기분. 비좁은 가게를 서성인데, 저 밖에서 엄마가 열린 집에 오라고 부를 것 같았다. 넓고 세련된 어떤 상점도 갖지 못할 정서가 연희네슈퍼에 고여 마음으로 흘러 들어온다.

슈퍼는 마지막 평지다. 이제 계단이고 골목이다. 계단과 골목은 서산동 주민의 삶과 역사를 담았다. 평지와 비탈 가운데 골라 집을 짓는다면 당연히 평지에 자리 잡을 것이다. 서산동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다. 일제가 목포를 수탈 기지로 삼고, 도로와 철도, 공장 등이 건설되자 주변 고장에서 사람이 모여들어 인구가 폭증했다. 면적이 넓지 않은 목포의 평지는 일본인이 차지했으니 주민은 비탈로 가야 했고, 서산동도 이때 탄생했다. 골목과 계단은 비정형으로 구불구불하다. 산 지형을 살살 달래 가면서 힘겹게 한 집 한 집 올랐으니 당연한 결과다. 시화골목은 세 갈래로 나뉜다. 이름하여 첫째·둘째·셋째골목. 어느 골목을 선택하든 사랑스러운 풍경과 글, 그림이 기다린다. 2015년 인문도시 사업 일환으로 목포대학교와 주민, 지역 예술가가 합심해 동네

이야기를 담은 시화를 제작한 일이 시초였다. 평범하게 남아 가던 동네의 가치를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호응을 얻고, 지역 예술가가 마을에 들어와 작업실을 꾸리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 3년 사업이 끝나고도 꾸준히 듣고 쓰고 사진 찍고 그렸다. 마을 사람끼리만 알던 사연이 예술을 입고 작품이 되었다.

고운 시, 다정한 색의 위안

“자득들 여그서 여우고/ 아들이 잘되었제/ …(중략)…/ 늙어서 아픈 게 그라제/ 아픈 게 송이제”(손○애, 85세). “터미널에서 33년간 일했제/ 일은 힘들어도/ 일 끝나고 어울려 논 것이 제일 재밌었제/ …(중략)…/ 목포의 눈물, 완행열차 불렀제/ 팔자에 타고난 고생/ 그래도 그때가 즐거웠제”(김○순, 84세). 주민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쓰고, 주민이 직접 그림도 그렸다. 두 사람이 이슬이슬 지나갈 좁은 골목, 조그만 집의 담벼락은 훌륭한 전시 공간이다. 차도 못들어오는 마을에 연탄 나르고 물 길러 가족을 건사한 분들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쉽표 없이 달려온 인생을 달랑 몇 줄로 요약하고 손사래 치며 웃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 계신다. 집과 담의 색



시화골목은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해 걸든 위쪽 보리마당으로 이어진다. 낮은 지붕이 어깨를 맞대고 선 좁은 골목 사이로 보이는 바다와 마을 풍경이 일품이다.



이 그분들 얼굴만큼 곱기도 하다. 시를 읽다 예쁜 색에 감탄하다 문득 뒤를 돌면 아, 바다가 반짝인다. 목포 바다는 여행자 마음에도 물결이 치게 하는가. 이 골목은 중력이 특별히 강한지, 발바닥을 자꾸 잡아끌어 수시로 멈춰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게 했다. 계단 끝에는 보리마당이 나온다. 손바닥만 한 땅에 재배한 보리를 넣어 말리던 곳이자 주민이 인생사 희로애락을 나누던 곳이다. 2020년 방영한 드라마 <도도솔솔라라솔>을 여기서 촬영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고만고만한 집이 촘촘히 늘어선 마을 풍경이 하도 정다워 마음속 맷힌 무언가가 사르르 녹는다. 이 골목에서는 누구나 착한 사람이 될 것 같다. 마을을 떠나기 전, 연희네슈퍼 건너편 서산동갤러리에 들렀다. 서산동과 목포를 사랑해 머물며 활동하는 전경삼 시인, 김신 사진가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잠시 다녀가는 여행자가 서산동을 얼마큼



알까. 예술가 덕분에 마을의 새벽과 밤을, 사계절을 본다. “삶이 낮은 쪽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누구에게든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미처 드러낼 수 없는 사연 얼마쯤은 마음 어두운 쪽으로 물러 두면 그만이고, 빛무리진 마음 어르며 달래며 하루하루 건넌다.” (전경삼의 시 ‘서산동’ 중) 목포와 서산동을 담은 책 갈피를 쫓겨 나오는 길, 시인이 갤러리 밖까지 친히 배웅한다. 서산동만큼 따뜻한 배웅이다.

내 마음속 1번국도 기점, 목포

오늘 하루를 건넌 해가 목포 바다 아래로 잠길 즈음, 바다로 향한다. 날아오르는 학을 닮은 형상으로 물과 고하도를 잇는 목포대교의 노을과 야경을 감상할 참이다. 목포는 호남선 철도에 1번국도 기점이 있는 교통 요지다. 서울을 거쳐 신의주로 가는 1번국도가 고하도 신항을 출발해 곧장 목포대교를 탄다. 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한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4.1킬로미터 다리에 조명이 들어오고, 숨 막히는 다도해 절경은 차츰 어둠에 몸을 기댄다. 사는 날 동안 몇 번이나 목포를 더 볼 수 있을까. 목포에 앉아서 벌써 목포를 그리워한다. 목포 여행 자라면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10



목포에서 놓치기 아까운 야경 명소

Mokpo's Nightscapes

Nightscapes
1



갯바위 Gatbawi Rock

서해와 영산강이 만나는 지점, 갯을 쓴 독특한 형상의 두 바위가 눈길을 끈다. 까마득한 세월에 걸친 풍화와 침식 작용이 빚은 자연의 작품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갯바위는 낮에도 감탄을 자아내지만 조명이 들어 온 밤에는 더욱 신비롭게 보인다. 바위 앞 바다에 턱을 깔아 해상 산책로를 걸으며 감상할 수 있다.

Two unique rocks that look like men wearing traditional Korean hats mark the point where the Yellow Sea meets Yeongsangang River. Shaped by the forces of weathering and erosion, Gatbawi Rock is a natural masterpiece. Under the night lights, it takes on an even more mysterious allure.

Nightscapes
2



목포해상케이블카 Mokpo Marine Cable Car

3.23킬로미터, 왕복 40여 분 동안 도심과 유달산, 다도해를 파노라마로 누린다. 북항·유달산·고하도 세 군데에 정거장을 설치해 원하는 곳에서 내려 주변을 돌아보고 다시 탑승하면 된다. 바다를 건너는 구간 최고 높이가 무려 155미터에 이르러, 그야말로 아찔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케이블카에서 노을과 야경을 보는 시간, 목포가 왜 낭만 항구인지 실감한다.

Covering a distance of 3.23 kilometers, the round-trip ride takes around 40 minutes, allowing you to soak in panoramic views of the city, Yudalsan Mountain, and Dadohae. As you watch the sunset from the cable car, you will truly grasp why Mokpo is considered a romantic port.

Nightscapes
3



춤추는 바다분수 Dancing Sea Fountain

150미터 길이의 수반에서 최대 70미터까지 물줄기가 솟아오른다. 음악에 맞춰 물이 온갖 각도와 모양으로 춤추는 장면은 꿈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환상적이다. 현재는 재정비 작업 중으로, 4월에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해상 무대 공연과 불꽃, 드론 쇼가 어우러진 목포해상W쇼도 함께 돌아온다. 봄날엔 목포가 더욱 반짝반짝해지겠다.

A musical water fountain, stretching 150 meters, shoots up water streams as high as 70 meters. Currently undergoing refurbishment, it is set to return in April, around the same time as the Mokpo Marine W Show, which combines maritime stage performances and fireworks displays.

Nightscapes
4



목포근대역사관 Mokpo Modern History Museum

1900년 일본영사관으로 지은 1관, 1921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으로 지은 2관에서 목포의 역사를 만난다. 아찔지만 저항을 포기하지 않은 곳곳한 이야기가 감동을 전한다. 붉은 벽돌 외관이 멋진 1관은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 등장하기도 했다. 주변에 수많은 근대 건물이 보존돼 있어, 조명 컨 역사관 일대를 걷다 보면 과거 속을 거니는 느낌이다.

Dating back to 1900, Hall 1 was initially constructed as the Japanese Consulate, while Hall 2, erected in 1921, served as the Mokpo Branch of Dongyang Cheoksik Company. Hall 1, with its striking red-brick exterior, even made an appearance in the Korean drama *Hotel del Luna*.



+ 미식 도시 목포 Gourmet Destination

남도의 풍부한 식재료가 이합집산하는 목포는 음식으로 실망시키지 않는 미식 도시다. 목포시가 선정한 9미는 세발낙지, 홍어삼합, 민어회, 꽃게무침, 갈치조림, 병어회(젓), 준치무침, 아구탕(젓), 우럭간국, 어딜 가나 맛집이고, 바다나 근대거리를 조망하는 분위기까지 훌륭한 가게도 즐비하다. 바닷가 평화광장 맛의거리 등 곳곳이 깨끗이 단장해 손님을 맞는다.

Abundant with the diverse flavors of the southern region, Mokpo stands as a culinary haven and a major gourmet city. Its nine delicacies, including thin-legged octopus, fermented skate and pork with kimchi, and braised beltfish, are fail-safe choices. Restaurants at the seaside Peace Square welcome guests with a clean and inviting atmosphere.



이색 여행

대구



editor. 남혜림 photographer. 신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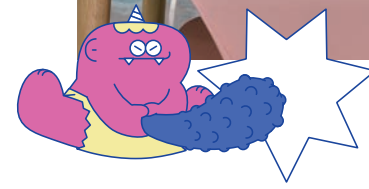


www.korall.com 한국철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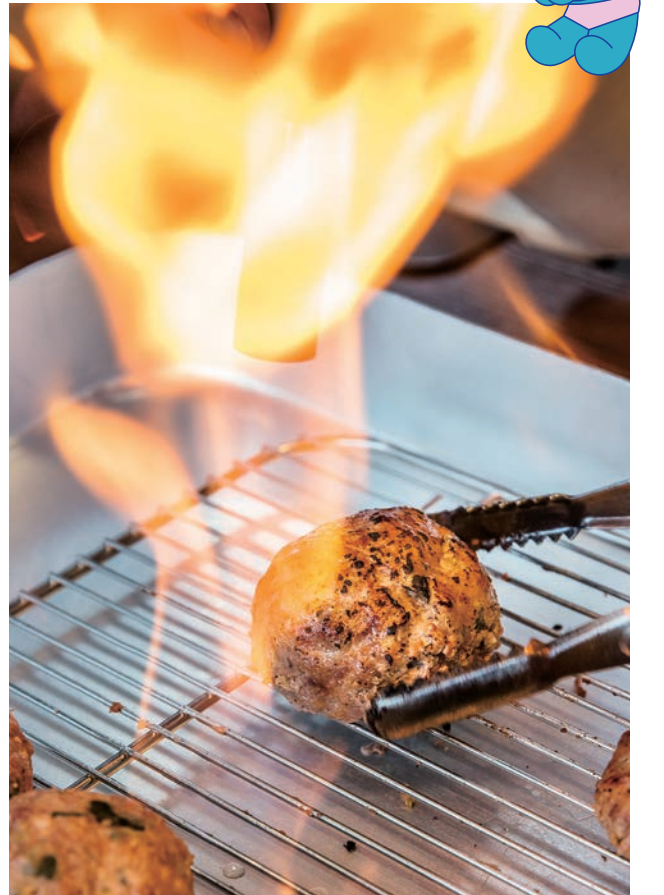
시장으로 온 청년들



대구 현풍백년도개비시장



근심, 걱정을 먹고 사는 도깨비가 머무는 대구 현풍백년도개비시장.
이곳 청년들 '현이와 풍이의 청춘신난장'에서 마음껏 노닐었다.





대구 현풍백년도개비시장

대구 현풍읍은 예부터 오일장과 인근 우시장 덕에 달성군의 중심지로 여겨졌다. 고장의 든든한 뿌리인 오일장이 정비를 마치고 처음 문을 연 것은 1918년. 이후 현풍백년도개비시장이라는 이름을 얻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 왔다. 시장에는 손님과 상인의 근심, 걱정을 먹는 도개비가 산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한다. 시장 마스코트인 도개비 현이와 풍이 그림을 따라 청년물 '현이와 풍이의 청춘난장'으로 간다. 떡갈비, 돈가스 등 맛난 음식을 내는 식당부터 라탄·자개 공예 체험이 가능한 공방까지 개성이 돋보이는 가게가 즐비하다. 이곳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 상인에게 전통시장 내 공간을 제공해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창업·역량 교육, 창업 지원, 제품 개발, 판매 촉진 등 사업 시작부터 사후 관리까지 도움을 주니 청년의 꿈과 아이디어가 멋들어지게 실현된다. 청년물이 물고 온 새바람으로 시장 상인과 청년은 물론 방문자까지 즐겁다.



+ 청년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년 창업을 뒷받침해 주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가꾸어 청년물을 조성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을 선발해 가게를 내어 준다. 창업과 관련한 경영 교육은 물론 제품 개발 및 홍보, 점포 운영 등 사업 전반을 돕는다. 청년물 사업으로 청년은 기회를, 시장은 활력을 얻는다.





라탄, 자연을 엮다

처음에는 취미 생활로 삼을 요량이었다. 바쁘게 회사를 다니던 시절, 머리가 복잡하고 심란할 때 라탄 공예에 집중하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라탄의 매력에 빠져든 심미진 대표는 우연히 청년몰을 알게 됐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한 '누구나가게'에서 3개월간 공방을 운영했어요. 그 후 자신감을 얻어 지금의 '라탄, 자연을 엮다'가 생겨났죠."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등나무를 가공해 만든 라탄 줄기만 있다면 재료 준비는 끝이다. 라탄에 물을 먹여 부드럽게 만든 뒤 일정한 규칙을 따라 엮는다. 같은 작업을 반복했을 뿐인데 컵 받침, 연필꽂이, 바구니, 시계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탄생한다. 체험은 물론 심 대표가 완성한 라탄 소품 구매도 가능하다. 라탄 제품은 나무로 만들어 환경 오염 걱정이 덜한 데다 손때가 물을수록 멋을 더한다.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어지는 물건이다.

☞ 원데이 클래스(컵 받침, 손거울, 시계 등), 취미반, 전문가반
 ● @rattan.natural



떡갈비 한 팩

현풍에서 나고 자란 임재록·임재무 형제가 의기투합해 떡갈비를 선보인다. 우선 한우와 한돈에 대파, 양파 등 각종 채소를 배합해 반죽하고 수차례 치댄다. 오븐에 초벌로 구워 낸 것은 손님에게 내기 직전 토치로 바삭 익힌다. 은은한 불향을 더하고 나면 밥반찬으로 제격인 떡갈비가 완성된다.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냄새에 저절로 침이 고인다. 떡갈비의 정석인 순한맛, 알싸한 매운맛, 모차렐라 치즈를 품은 치즈맛까지 선택지를 세 가지나 마련해 손님은 행복한 고민을 한다. 2023년 끝자락 청년몰에 입점한 두 형제의 가게는 금세 입소문이 퍼졌다. 새로운 메뉴 떡갈비정식을 고안해 내더니, 이제는 인기에 힘입어 전국에 택배 서비스도 실시한다. "즐근 요식업에 도전해 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로 고향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한 청년몰 상인들과 꾸러가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02

☞ 떡갈비 한 팩(5개), 떡갈비정식
 ● @hyunpoong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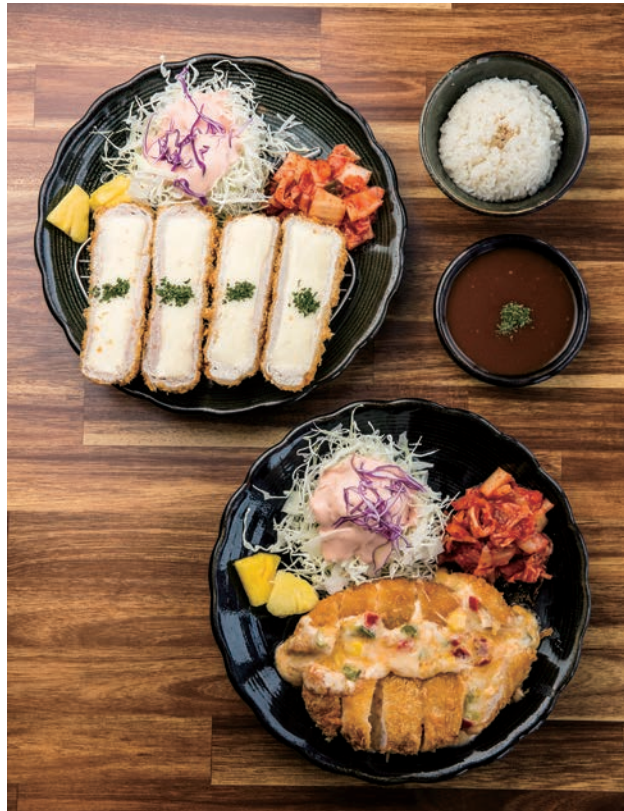
바이러핀

올해도 어김없이 세운 목표, 건강관리. 하지만 바쁜 현대인에게 꾸준한 운동과 식이 조절은 해내기 어려운 숙제다. 샐러드 도시락 전문점 '바이러핀'은 식이 조절 고민을 덜어 준다. 4주 정기 배송 기준 일주일에 한 번, 원하는 요일에 샐러드 도시락 세 개가 문 앞에 도착한다. 출산으로 경력에 단절되고 산후우울증을 겪던 김나영 대표에게 청년몰은 희망이었다. "입점 모집 현수막을 보고 얼마나 심장이 뛰었지요. 포기하지 않고 연습한 시간이 쌓여 여기까지 왔네요." 김 대표는 영양사와 함께 영양 성분, 식감과 색깔을 고려해 재료를 조합하고 각 샐러드와 어울리는 드레싱을 연구했다. 그렇게 구성한 샐러드 종류가 무려 서른 가지. 오리지널, 오리지널의 절반 분량인 하프포 도시락 크기를 나눠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나 다채롭고 든든한 샐러드라니,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

03

☞ 오리지널, 하프(4주 정기 배송)
 ● @bylove_official_sal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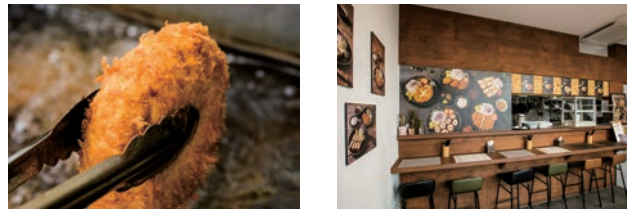


용돈가스

청년물 터줏대감 '용돈가스'가 점심시간 손님맞이에 한창이다. 한 입 베어 물면 모차렐라 치즈가 죽 늘어나는 치즈돈가스, 피자맛이 비슷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코돈부르 등 상 위에 다양각색의 돈가스가 놓였다. 청년물에 입점하기 전 광태혁 대표의 일터는 학교였다. 가정교육학을 전공해 영양학, 조리학이나 가정경제학, 소비심리학 등에 눈이 밝았다. 현풍백년도개비시장에 청년물이 들어선 2019년, 이곳에 자리 잡은 뒤 광 대표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불러 나갔다. 현재는 가족, 친구까지 뛰어들어 운영 틀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덕에 재료 질이나 서비스에 오롯이 신경을 쓸 수 있었죠. 국내산 돼지 생등심을 받아 오는 것부터 근막 제거, 염지, 숙성, 조리 등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직접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질 좋은 음식을 손쉽게 제공하고 싶어요."

04

☞ 용돈가스, 치즈돈가스, 코돈부르
☎ 053-611-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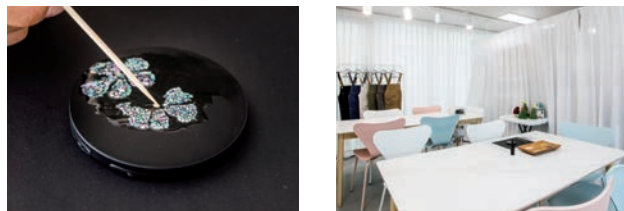


관악아트센터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방 '올랑올랑' 한편에 앉자 최정은 대표가 자개 공예 재료를 가지고 나온다. 까만 배경에 풀을 칠하고 색색으로 빛나는 자개를 조심스레 얹는다. "공예는 시험이 아니에요. 정답이 없죠. 분명 멋진 작품이 완성될 테니 마음 가는 대로 꾸며 보세요." 최 대표의 따스한 말에 용기가 샘솟는다. 원하는 패턴을 만든 뒤 레진으로 후처리를 거치니 자개 그림독이 영롱하게 빛난다. 공예에 관심이 많아 독학을 거듭하던 최 대표는 청년물에서 손재주를 마음껏 펼쳤다. 아이, 가족, 어르신이 최 대표의 안내에 따라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든다. 공예에 자신이 없던 이도 즐거운 추억을 안고 나간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좋아서 보건소나 치매 예방 센터, 장애인복지관에 출강도 갑니다. 앞으로 다양한 공예에 도전하고, 공예를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할 생각입니다." 늘 미소 짓는 최 대표 덕에 공방이 환하다.

05

☞ 원데이 클래스(자개 공예, 드로잉 무드등·나만의 머그잔 제작)
☎ @o_olang21



대구 현풍백년
도개비시장
더 알차게 이용해
보세요



라탄, 자연을 엮다
심미진

무거운 짐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방문하시나요? 현풍백년도개비시장에서 주차 걱정은 마세요. 시장 정문 바로 맞은편과 옥상에 무료 주차장을 넉넉하게 조성했고, 전기차 충전소도 마련했습니다.



현풍떡갈비
임재록, 임재무

현풍백년도개비시장 하면 수구레국밥이 빠질 수 없죠! 수구레는 소의 가족과 살코기 사이에 위치한 부위인데, 국밥이나 무침으로 즐겨 먹습니다. 쉽게 만나기 어려운 음식이니 꼭 맛보세요.



바이럽
김나영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현풍백년도개비시장 2층 회의실에서 문화 교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개 공예, 라탄 채반 제작, 샐러드드레싱 만들기 등 신청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니 활용해 보세요.



용돈가스
곽태혁

시장은 언제 방문해도 흥이 나는 곳이지요. 평상시에도 상설 시장을 열지만 매달 0, 5가 들어가는 날짜는 전통 오일장이 서는 날입니다. 더욱 활기 넘치는 청년물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오일장을 놓치지 마세요!



올랑올랑
최정은

인근에 흥미로운 곳이 많습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 국립대구과학박물관 등을 여행하고 보세요. 맛난 음식으로 허기를 달랜 뒤 청년물 공방에서 여행의 기억을 작품으로 만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ROMANCE



서울

창밖은 까만 어둠뿐, 땅속을 다니는 전철은 '수송'의 목적에 충실하다. 편리하게, 빠르게. 그러다 지상 구간을 지날 때 창은 풍경을 담아내는 액자가 되고 이동 중이던 사람들은 잠시 여행자로 변신한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한강철교를, 2호선이 당산철교와 잠실철교를, 3호선이 동호대교를, 4호선이 동작대교를, 7호선이 청담대교를 건너는 순간이 그렇다. 한강이 있어 그래도 서울이 숨을 쉬는구나. 고궁과 왕릉, 공원이나 산과 하천. 이들 덕분에 도시를, 나아가 삶을 견디고 긍정한다. 인간은 집과 학교, 회사와 그 사이를 잇는 길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비효율적' 존재다. 사랑, 낭만, 꿈같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살게 한다.

드라마가 사랑을 주제, 소재 삼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극 속 인물은 사건을 겪고 변화, 성장해 나가면서 사랑도 열심히 한다. 전철 지상 구간처럼, 유적지나 공원처럼 사랑은 삶의 녹색 지대이자 산소호흡기가 되어 준다. 사랑으로 아파하는 주인공의 마음을 간접 체험하며 함께 절절해져도 좋다. 이 또한 드라마 보는 즐거움이고, 그들에게는 웃는 결말이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과거 많은 드라마가 재벌 3세·의사·변호사 등 부유하고 소위 높은 지위의 인물, 특히 남성과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를 변주해 왔다면 요즘엔 판타지 로맨스가 주류를 이룬다. 악마·멸망·죽음·도깨비를 만나고, 시간을 거슬러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 거짓말을 간파하거나 남의 마음이 들리는 초능력을 보유하기도 한다. 1956년, 배우가 생방송으로 연기해 방영한 한국 최초 드라마 <천국의 문> 이후 약 70년. 온갖 시도와 상상을 거듭해 온 드라마가 판타지로 발을 넓혀 색다른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 있다. OTT 채널의 등장, 웹툰·웹소설의 기발한 설정도 영향을 주었고, 무엇보다 로맨스가 힘든 현실이 판타지를 부른다. 모두가 너무 바쁘고, 사회에서 자리 잡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며, 폭넓은 관계를 마음 터놓고 맺기가 쉽지 않다. 드라마에서라도 인간을 벗어난 존재와 사랑에 빠지거나, 전생애 맺은 연을 현생에 이어 가는 상상을 해 보는 것이다.

환상적인 로맨스를 표현하기 위해 제작자가 자주 찾는 공간은 역시 한강, 유적지, 공원이다. 대도시 사람을 숨 쉬게 하는 곳이 화면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판타지가 묘한 현실감과 재미를 더하는 촬영지를 소개한다. ①

Outside the window, there is only darkness, and the subway running underground remains faithful to its purpose of "transportation." However, when passing through above-ground sections, the subway window becomes a frame capturing the scenery, and commuters momentarily transform into travelers. The moments when the subway crosses the Hangang River are particularly enchanting. The city's palaces, royal tombs, parks, mountains, and rivers serve as affirmation of our lives. Invisible yet palpable elements like love, romance, and dreams are what make us truly alive.

The reason dramas speak about love is no different. Love goes through ups and downs as characters experience change and growth. Similar to the above-ground sections of the subway, love becomes the green zone of life.

In the past, many dramas were based on stories of wealthy third-generation heirs, doctors, and lawyers. Nowadays, fantasy romance dominates the scene. Popular themes include encounters with demons, and time-traveling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Since the first drama aired in 1956, the industry has evolved, embracing fantasy to create diverse narratives. The advent of OTT channels and webtoons have also played a part, and the challenges of real-life romance make fantasy all the more appealing. Dramas offer a temporary escape by having human characters fall in love with supernatural beings, or connecting the past life to the present.

To express romance in fantasy dramas, creators often turn to locations such as the Hangang River, historical sites, and parks. Places that breathe life into the bustling city also exert their power on-screen. Below are some shooting locations that use real spaces as a backdrop, adding a peculiar sense of reality and enjoyment to fantasy. ①

대도시의 로맨스

고층 빌딩 뺨뺨한 서울에서도 로맨스가 피어난다. 판타지 로맨스 속 환상적인 장면의 배경을 모았다.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DRAMA

<낮에 뜨는 달> #성균관



가야 멸망에 앞장선 신라 장군 도하는 연인이자 가야 대장군의 딸 한리타에게 목숨을 잃고 지박령이 되었다가 현대의 연예인 몸에 들어간다. 전생의 한리타, 현생의 소방관 영화가 그와 얽히고 드라마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이들의 사랑과 원한을 보여 준다. 아픈 현생 뒤 다음 생, 둘은 결국 재회한다. 긴 인연을 말하듯 성균관에서다.

Do-ha, a general in the Silla Dynasty, is killed, only to be reincarnated into the body of a modern-day celebrity. He meets Han Ri-ta, a firefighter who was his lover and Gaya's daughter in her past life. In the next life, the two are reunited at Seonggyungwan's Scholar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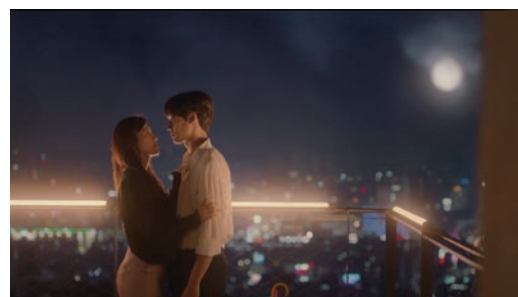


DRAMA

<18 어게인> #창신동 채석장 전망대

기혼자가 한 번은 한다는 생각. '내가 왜 결혼했지?' 그 답을 드라마가 알려 준다. 결혼 18년 차, 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고 꿈 많은 시절을 그리던 남자는 정말 열여덟으로 돌아간다. 낯설지만 낯익은 열여덟 살 남자가 남편임을 깨달은 아내가 찾아가 진심을 말하는 곳이 창신동 채석장 전망대다. 이들 뒤로 서울 야경이 별처럼 반짝인다.

After 18 years of marriage, Dae-yeong, facing his wife's request for a divorce, miraculously finds himself back in his ambitious and dream-filled youth at the age of eighteen. His wife realizes that the eighteen-year-old is her husband, and pours her heart out at the Changsin-dong Quarry Observatory.



DRAMA

<소용없어 거짓말> #백빈건설목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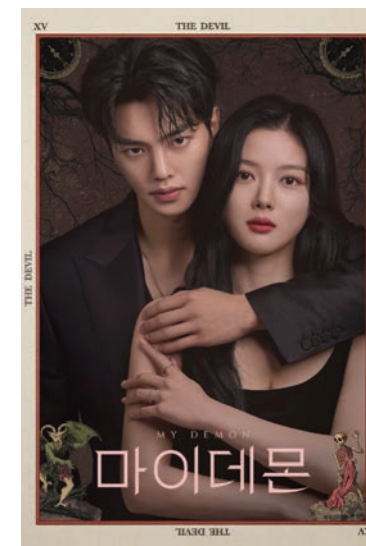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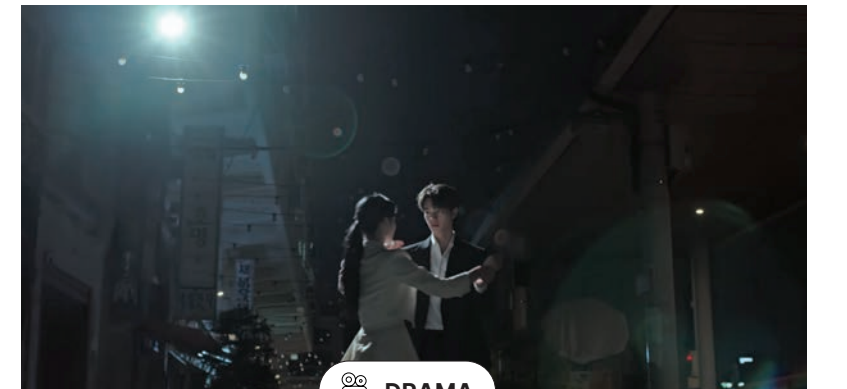
거짓말이 들려서 인간을 믿지 않는 여자, 살인 용의자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남자가 만난다. 얼굴도 감추고 살 만큼 위축되었던 남자는 여자 덕분에 조금씩 세상에 나오고, 여자도 속내를 드러내는 법을 배운다. '쌍방 구원'의 서사가 시작되는 술집 창밖에 전철이 지나간다. 땡땡 소리가 낭만을 더하는 백빈건설목이다.

A woman with an ability to hear lies encounters a man who must prove his innocence as a murder suspect. The man gradually steps out into the world with the help of the woman, and she learns how to reveal her true feelings. The narrative of "mutual salvation" begins near Baekbin Railroad Crossing.



DRAMA

<마이 데몬> #노들섬, 대림상가



한순간 능력을 잃은 악마 구원은 이를 되찾아야 하고, 살해 위협을 받던 도희는 악마의 도움을 이용해서라도 살아남으려 한다. 도희 손목으로 옮겨 간 자신의 표식을 본 구원이 노들섬에서 도희를 강물에 빠뜨리는 등 여러 사건을 겪지만, 차츰 서로 물들어가는 둘. 대림상가의 '탱고 액션' 장면이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The demon Gu-won, who has lost his powers, strives to regain them. Meanwhile, Do-hee, haunted by threats of murder, seeks the demon's help. Gu-won pushes Do-hee into the Hangang River while on Nodeul Island, and the pivotal "tango action" scene takes place at Daelim Plaza.

용을 찾아서



한국에는 용 관련 지명을 가진 곳이 1261군데에 이른다. 청룡의 해, 용의 기운과 이야기가 서린 장소를 모았다.

강원도 인제 대암산 용늪

해발 1304미터 대암산의 1180~1280미터 고지대에 습지가 있다. 세계에서 흔치 않은, 산 정상부 습지다. 1966년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연구하다 발견했고,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한국 최초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1.36제곱미터 습지에는 1100종 넘는 동식물이 어울려 살아간다. 승천하던 용이 쉬어 갔다는 전승처럼, 1년에 170일 넘게 안개에 싸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귀한 만큼 지정된 탐방 기간에 미리 신청하고 방문해야 한다.

경북 포항 구룡포

폭풍우 요란한 날 용 열 마리가 승천하던 중 한 마리가 바다로 떨어지자 잠잠해졌다. 이 바닷가 이름이 구룡포. 무려 아홉 마리가 하늘로 올라간 기운도 그렇지만, 다른 한 마리의 희생도 구룡포의 아름다움에 기여했을 것 같다. 푸른 동해와 소박한 마을, 언덕이 어우러진 동해는 일제강점기 건물도 다수 남아 풍경을 감상하는 여행뿐 아니라 역사를 새기는 여행을 하기도 좋다. 때마침 겨울은 바다 먹거리 맛이 절정인 계절. 대게와 과메기가 유혹한다.

강원도 태백 검룡소, 구문소

대한민국의 큰 강인 한강과 낙동강이 약 500킬로미터의 긴 여정을 출발하는 곳, 바로 태백이다. 서해의 이무기(검룡)가 용이 되기 위해 물길을 거슬러 와 머물렀다는 검룡소가 한강 발원지다. 해발 800미터 지대, 비밀스러운 숲속은 과연 전설의 무대답다. 구문소에는 백룡이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낙동강 상류 황지천이 연화산의 기암괴석을 뚫고 지나간 풍경이 웅장하다. 매년 여름 용을 테마로 한 '구문소 용 축제'가 이곳에서 열린다.

경기도 양평 용문사

신라 시대에 창건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가람도 아름답지만, 높이 40여미터, 둘레는 14미터에 이르는 은행나무가 명성을 더한다. 수령 1100년 이상으로 추정하는 노거수는 나라가 바뀌고 술한 전쟁을 치렀어도 살아남은 기적 같은 존재다. 용이 지켜 주었기 때문일까, 이 나무 자체가 용처럼 신령한 힘을 지녀서일까. 용문은 통과하면 용이 된다는 문. 사찰의 일주문 또한 용이 받치고 있다. 용의 강인한 생명력과 기상이 올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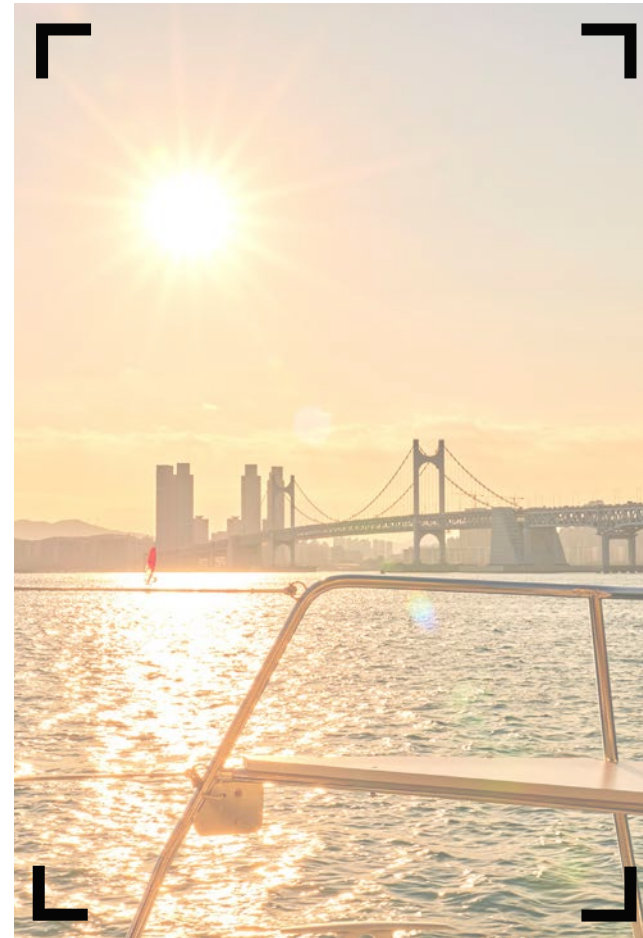
© 인제군청

© 한국관광공사

기차여행센터

WOW YACHTS HEALING SPACE

"럭셔리 & 스페셜한 요트와 개인 맞춤 서비스를 통한 완벽한 하루"



KTX 공식 협력 여행사 문의사항 1899-2550

카톡 채널 상담 '기차여행센터'



더 자세한 사항은 QR CODE로 확인해 보세요

KTX 편도 + 와우요트 패키지

여행일 2024년 02월 ~

포함 내역 서울-부산 1인 편도 KTX 승차권
와우요트 퍼블릭 투어 1인 (1시간 탑승권)
*다른 행선지의 경우 아래 QR코드 접속 후 선택 가능
*티켓만 전달 드리는 자유여행 상품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식대, 개인 기타 경비 등

상품가 **89,800원**

부산의 중심 마린시티에 위치한 와우요트는 럭셔리 & 스페셜 요트와 개인 맞춤 서비스로 아름다운 낭만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투어는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해 해운대 랜드마크인 마린시티, 야경이 멋진 동백섬,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 등 주요 코스를 돌아 다시 수영만요트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며 1시간가량 소요됩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바다의 화려한 풍경과 감동을 고급스러운 요트 위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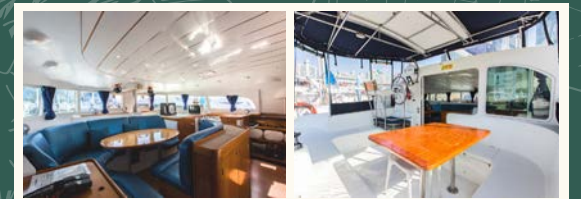
WOW YACHT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수영만요트경기장

운항코스

수영만요트경기장 - 동백섬 - 해운대해수욕장 - 광안대교 - 광안리해수욕장 - 동백섬 누리마루 - 마린시티





작가의 방

editor. 강은주 photographer. 신규철



맏는
예술,

ړ고, ㅈ고, 맏는 신비로운 전통이 김혜순 맏들장의 손끝에서 날마다 다시 태어난다.



맏들장



노리개·허리끈·주머니 등 의복의 부속 요소를 갖추는 데 긴요하게 쓰였고, 가마·상여·깃발 등 의례에 엄숙함을 더하는 도구로 활용됐다. 사용 범위가 차츰 넓어진 매듭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빠르게 대중화됐다. 이 시기 법전 <대전회통>은 실 여러 가닥을 한데 짜 끈목을 완성하는 장인을 다회장(多繪匠), 이 끈목으로 매듭을 맺고 술을 만드는 장인을 매집장(每緝匠)이라 기록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잠시 명맥이 끊긴 매듭 전통은 황해도 해주 출신의 한 여성이 기적적으로 수습, 현대로 전승한다. 그의 이름은 김희진. 상여 장식의 오묘한 결구에 마음을 빼앗겨 매듭에 투신한 김희진은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명예보유자이자 1979년 한국매듭연구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가 1963년부터 전국 방방곡곡의 장인에게서 매듭의 기본형, 끈목 짜는 법, 술 제작하는 법을 익혀 정리한 <매집과 다회> <한국매듭>은 매듭의 정전 그 자체다.

김혜순은 김희진이 운명처럼 만난 후계자다. 대학에서 섬유공예를 전공하고 한 때 자수 도안 그리는 일을 했던 그는 남편의 누님인 김희진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매듭의 미감에 스며든다. 훗날 김희진은 김혜순의 전시 촉사에 이렇게 쓴다. “명주실 만지는 손끝이 익숙한 걸 보는 순간 반가웠다.” 이에 김혜순은 자신의 전시가 김희진의 이재 초상화 오색조대 재현 작품에서 착안했음을 밝히며 “선생님은 유물로도 남지 않은 조선 시대 장인들의 숨씨를 그림 속에서 찾곤 하였습니다”라고 존경을 담아 호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믿음직스러운 조연자이자 조력자였다.

“선생님은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즐기셨어요.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보석 같은 매듭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기도 했죠. 매듭을 매개로 문화계의 존경스러운 여러 스승, 제자와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을 맺었네요. 제 인생엔 수많은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은 인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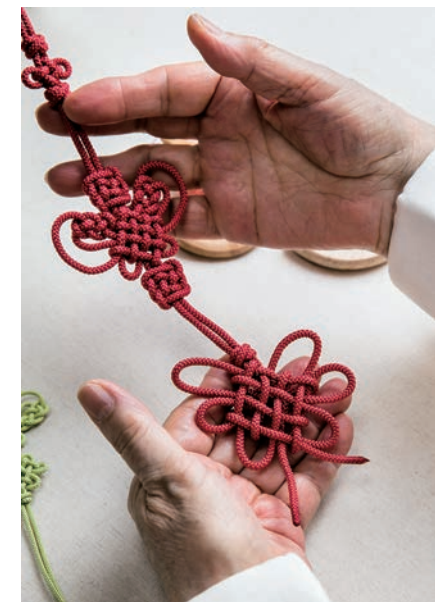
문명의 여명기, 인류는 비로소 옷을 지어 입는다. 옷의 기원은 허리에 단출한 띠를 두른 형태인데, 이를 완성하는 요소가 바로 매듭이다. “유의, 또는 띠 옷이라 부르는 최초의 옷은 몸을 보호하거나 무언가를 몸에 지니기 위해 탄생했어요. 옷이 제 기능을 하려면 질긴 넝쿨 같은 끈으로 동여매야 했으니, 매듭은 결정적 발명이라 할 만하죠.” 올해 나이 여든, 삶을 매듭에 바친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김혜순이 끈틀 앞에서 몸을 바로 세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듭은 이 세상에 아니 쓰인 곳이 없답니다.”

무궁무진, 매듭의 세계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지역이나 문화는 달라도 매듭이란 개념은 전 지구상에 존재해 왔다. 실용성에서 비롯한 초기 매듭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장식성을 띤 예술로 발전했다. 때론 권력자의 위세를 드러내고 때론 신성성을 증폭하는 도구로 진화하면서 화려한 모습을 갖추어 갔다. 국보 금동미륵보

살반가사유상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다면 허리띠 양 옆으로 늘어뜨린 광다회, 즉 넓게 짠 끈목을 얼마나 섬세하게 묘사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바람결에 흔들리듯 드리운 술 장식 또한. 그뿐인가. 백제금동대향로와 <악학궤범>에 드러난 국악기 유소, 청자 상감 보자기 무늬 매병의 네 귀퉁이에 새긴 매듭, 신윤복의 ‘미인도’ 속 여인이 옷고름에 장식한 노리개는 또 어떠한가. 무수한 유물이 한국 전통 매듭의 아름다움을 증거한다. 입에서 입으로,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진 매듭 문화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 꽃을 피운다. 궁궐과 양반가에서 매듭은

김혜순 194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1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김희진 선생에게 매듭을 사사했고, 1979년 한국매듭연구회 창립 회원이 되었다. 그 이래로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한국과 해외 곳곳에서 수차례 회원전과 개인전을 개최하고 후학을 양성했는데, 2003년에는 프랑스 루르드 성지 성모무염시태 성당에 ‘한국의 성모님’ 자수 성화와 매듭 유소를 봉헌하기도 했다. 2017년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매듭을 닦은 인생

한국 매듭 전통을 집대성한 스승에 이어 김혜순은 계승과 전수, 나아가 현대화를 시도한다. “매듭을 만난 뒤 제 작품 세계가 한층 넓어졌어요. 특히 자수와 매듭을 접목해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실험적인 작업을 꾸준히 해 왔죠. 전통과 전승을 우선 과제로 여겼던 스승께서도 다음 세대와 교감하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여야 한다는 의지에 공감해 주셨고, 말년에는 몸소 현대적인 작품을 제작하셨어요.” 대가의 신념마저 동화한 김혜순의 작품은 실과 색으로 일군 환상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꽃을 모티프로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한 <연(蓮)> 연작을 비롯, 전통 회화를 추상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그의 여러 작품은 매듭의 또 다른 조형적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혔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김혜순의 작품 세계를 확장하는 굵직한 사건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방송 출연이다. TV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진행자 유재석의 ‘부캐’ 유아호가 김혜순의 매듭을 머리에 장식하고 등장한 것. “유아호라는 캐릭터가 처음 나올 때 태극선 선추로 머리 장식을 한 걸 보고 몇몇 시청자

가 왜 저렴한 매듭을 달았느냐며 비판적인 의견을 주었다고 해요. 이후 제작진이 제게 의뢰해 몇 가지 기본 매듭을 제작했어요.” 결과물은 단순해 보여도 공정이 단순하지는 않았다. 실을 끈목으로 짜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니 시간도 적잖이 걸렸다. “그저 바른 매듭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책임감에서 시작한 일이라 묵묵히 고생을 감수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보람을 얻었어요.” 김혜순의 매듭은 그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출연자의 장신구와 무대 장식으로 모습을 비쳤다. 조화롭고 기품 어린 매듭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호응이 일었다.

알고 보면 매듭은 짜고 맺는 모든 과정이 예술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눈 밝은 이들이 매듭 제작 공정을 무대에 올려 무용극을 완성했다. <생각하는 손-흠과 실의 춤>이란 제목부터 절묘하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작한 이 작품은 매듭장 김혜순과 사기장 김정옥의 손놀림을 현대무용과 사운드, 시각예술로 한데 조



+ <조선비주얼>

‘용모 단정 의관 정제’를 목숨처럼 여긴 조선 시대 선비의 장신구를 한데 모아 소개하는 전시로, 김혜순의 작품을 눈앞에서 만나는 기회다. 조선 시대 초상화에 드러난 허리띠를 온전하게 재현한 매듭장의 관찰력과 집념, 빼어난 솜씨를 엿본다. 그 외에도 능창대군과 영친왕의 망건, 구슬 갓끈, 귀걸이, 선추 등 과거 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멋을 부렸는지 짐작하게 하는 흥미로운 유물을 한자리에서 살필 수 있다.
기간 2월 25일까지
문의 031-579-6000(경기도 남양주 실학박물관)



매듭의 형태는 코, 몸, 손의 세 가지 요소로 분절된다. 코는 옷고름의 코처럼 부드러움과 여유를 나타낸다. 그러나 몸은 가닥을 결합시키고 묶음으로써 매듭의 강함을 나타낸다. 손은 아무리 복잡하게 맺어진 것이라 해도 다시 풀 수 있는 열쇠를 간직하고 있다. ... (중략) ... 매듭은 끈의 문화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마음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어령, <우리 문화 박물관>

합한다.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장인의 손, 끈들에 달린 토착이 달랑거리며 서로 부딪는 소리, 분위기를 고조하는 무용수의 유려한 춤사위가 어우러져 시적인 감흥을 자아낸다. “전통 작품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만 했다면 반복적인 작업에 어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깨치며 나아가려는 성향 덕분에 지금껏 지치지 않고 이 일을 하는가 봅니다.”

그는 여전히 서울 삼성동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 주 3회 매듭을 가르치며 제자를 양성한다. 후학을 배출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다. 김혜순에게 매듭을 배운 이 중 하나는 한국매듭연구회 부회장인 김시재 매듭장 이수자다. 그도 남편의 어머니인 김혜순을 통해 매듭을 삶으로 받아들였다. 김혜순과 김희진의 우연한 만남처럼. “연봉매듭, 생쪽매듭, 국화매듭, 병아리매듭, 나비매듭, 매미매듭... 38종의 한국 매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모양이 자연에서 왔어요. 소원 성취를 바라는 마음, 사랑이 커지길 바라는 마음,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죠. 규방 공예란, 또 매듭이란 누군가를 위한 염원이자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토록 다정하고도 위대한 규방 공예의 내력, 여성 장인의 역사가 이 순간에도 매듭처럼 거둬지고 있다. **㉔**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



(왼쪽부터) 정혁 부장, 박신흠 차장, 김환철 과장, 이지혜 대리, 윤준동 대리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 수송기획부 열차 운행의 모든 것, 우리가 책임집니다

철도는 그리움을 실어 나른다. 설 명절, 이동과 만남의 애뜻한 순간을 위해 물밑에서 분주한 이들이 있다.
바로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 수송기획부다.

Q. 여객마케팅처 수송기획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KTX와 ITX-마음을 비롯해 현재 운행 중인 모든 간선 여객열차를 어떻게 운행할지 검토하고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노선별 차종과 운행 횟수, 출발역과 도착역 지정, 역별 정차 및 통과 열차 결정 등 운행과 영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지요. 명절 연휴처럼 이용객이 급증하는 기간엔 임시 열차 운행 등 수송력을 확대하거나, 공사 또는 사고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 임시로 운행을 조정하는 것도 저희 몫입니다.

Q. 2월은 설 특별 수송 기간을 포함한 달이지요. 특별 수송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철도를 이용해 명절을 쇠는 고객님의 여행길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 수송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기간에는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각 분야에서 안전 점검을 시행합니다. 높은 빈도로 오가는 열차를 무사히 운행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24시간 특별수송대책본부도 운영하죠. 올해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이동량을 고려해 가용 차량을 끌어 모아 수송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명절 기간이 그만큼 더 많은 고객님께 만남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지난해 12월부터 KTX 일부 노선을 연장 운행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A. 중부내륙선 KTX-이음 열차 노선인 경기도 이천 부발역~충북 충주역 구간이 경기도 성남 판교역까지 연장 운행 중이며, 중앙선 KTX-이음 열차 노선인 서울 청량리역~경북 안동역 구간은 서울역까지 운행을 확대해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두 노선 모두 연장 운행에 기대가 큰 만큼 많은 고객님이 보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Q. 열차 운행 전반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합니다. A. 그렇습니다. 열차 운행 조정은 고객 이용 수요와 선로 용량, 열차 간 경합과 차량 및 승무원 운용까지 열차 운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중앙선 KTX-이음을 서울역으로 연장하기 위해 강릉선과 연결하는 복합 운행 방식으로 선로 용량 문제를 해결했고, 청량리역의 승강장 길이를 연장해 안정적으로 복합 열차를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해결하면서 열차 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Q.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을 준비하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변수가 많은 일이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어느 때보다 뚝뚝 뚫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 운행 조정으로 중부내륙선과 중앙선 노선을 확대해 수혜 지역이 늘어난 것도 저희에게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각 지역 고객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Q. 2024년에도 기대할 만한 운행 조정 또는 노선 개통 소식이 있을까요? A. 현재 서해선 경기도 화성 송산역~충남 홍성역 구간, 중부내륙선 충주역~경북 문경역 구간, 동해선 경북 포항역~강원도 동해역 구간 등 여러 노선이 연내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특히 동해선 포항역~동해역 구간이 개통하면 부산에서 포항을 거쳐 동해로 가는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7번국도처럼, 동해선 열차도 곧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보여 드릴 겁니다. 개통 예정 노선에 열차가 원활히 달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독자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A.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철도공사 모든 직원이 맡은 업무를 완수해 열차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고가 저희 여객마케팅처 수송기획부의 열차 운행 계획을 통해 고객님께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객마케팅처 수송기획부가 꿈꾸는 기차 여행

- 정혁 부장** 서해선 전 노선이 개통하면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서해로 캠핑을 떠나고 싶습니다.
- 박신흠 차장** 명절 때 제 본가인 창원과 아내의 본가인 인천을 하루 안에 오가도록 인천발 KTX가 하루빨리 개통하길 기원합니다.
- 김환철 과장** 제 고향엔 아직 철도가 닿지 않습니다. 먼 훗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 이지혜 대리** 전남 보성부터 경남 진주까지, 남편과 경전선 무궁화호를 타고 느린 여행의 매력을 만끽하는 백패킹을 계획해 봅니다.
- 윤준동 대리** KTX를 타고 대륙을 넘어 프랑스 파리까지 달리는 꿈을 꿉니다. 대륙철도가 개통하는 날, 가족 모두와 KTX를 타고 대륙을 횡단할 거예요.

Treasure of Korea



추운 날에 드러나는 진심 - 세한도

19세기 조선 시대 '금수자' 중 금수자였던 김정희는 55세 나이에 누명을 쓰고 제주도로 유배를 간다. 3년이 지나도 해배 소식은 없고, 오히려 그를 사형에 처하라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를 꾸준히 챙겨 최신 서적을 보내주는 이가 있었으니, 중국어 역관 이상적이다. 글씨의 뿌리를 찾으려 노력한 김정희에게 책은 학문과 예술의 근원이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였다. 김정희는 이상적의 의리를 <논어>의 "세한후후 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라는 구절에 빗대어 고마워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소나무·측백나무 기둥과 가지의 메마름으로 '세한'의 한겨울을 나타냈는데, 물기 없는 붓에 진한 먹물을 묻혀 붓을 끄는 방법을 구사했다. 멀리서는 눈에 잘 띄지 않으니 다가 자세히 보길 권한다. 새로 단장한 기증관에서 5월 5일까지 '세한도'를 전시한다. 빛에 약한 전통 회화 특성상 기간을 정해 공개하는 작품을 만나는 기회다.



A Touch of Warmth - Wintry Days

In the 19th century Joseon era, Kim Jeong-hui found himself falsely accused at the age of 55 and was exiled to Jeju Island. For three years, the Korean-Chinese interpreter Yi Sang-jeok continued to support him by regularly sending the latest books. Kim expressed his gratitude in a painting,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Analects*: "Only after the year has grown cold does one know that the pine and cypress are the last to wither." Using a dry brush dipped in ink, he conveyed the spirit of winter through the desolation of pine and cypress trees. This evocative piece, titled *Wintry Days*, is on display at the newly renovated Donated Collection Gallery until May 5.



<생각의 힘이 커지는 미로찾기>

보석을 찾는 탐험가, 말을 타고 시합하는 기사, 지구와 우주, 사람과 동물 등 흥미로운 주제로 만든 미로찾기 70편을 수록했다. 미로찾기 놀이뿐 아니라 숨은그림 찾기, 숫자 세기에 관한 질문 등 구성이 알차다. 밝고 생동감 있는 그림 덕에 놀이 시간이 더욱 신난다.
노란우산 유아 콘텐츠 연구소 지음 노란우산 펴냄

Puzzle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노란우산

23 마구간에서

갈색 말 제임스는 마구간에 있는 친구에게 가려고 해요. 어느 길로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새 3마리를 찾아봐 줄래?

도착

개 2마리는 어디 있어?

출발

빈 양동이 3개를 찾아줘.

* 다음역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되도록만 찾아봐 주세요.

* 정답은 104쪽에 있습니다.

Culture

전시·시간

EXHIBIT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1123년, 중국 사신 서공은 전북 군산 앞바다의 유려한 군도가 꼭 바다 위의 성처럼 보인다고 했다. 섬은 때때로 최전방의 성곽이자 문화를 수호하는 울타리, 교통 요충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선사시대 생활 흔적을 추적하는 '바다 위의 산', 군산 앞바다의 전성기인 고려 시대를 살피는 '바다 위의 성', 조선 시대 군사 유물을 모은 '바다 위의 울타리'를 주제로 한 전시가 군산군도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기간 4월 28일까지 문의 063-830-0915(국립익산박물관)

<두산아트랩 전시 2024>

두산아트센터가 신진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두산아트랩'이 공모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에서 뚜렷한 궤적을 그려 온 35세 이하 작가를 선정했다. 김영미, 박지은, 송예환, 임정수, 정여름은 독창적 관점으로 인터랙티브,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경유해 우리가 처한 현실 세계를 보여 준다. 관습과 관성에서 벗어난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시선이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온다.

기간 2월 24일까지 문의 02-708-5050(서울 두산갤러리)



영상 콘텐츠·공연

MOVIE



<소풍>

돌아가신 엄마가 자꾸 꿈에 보여 심란한 은심 앞에 절친이자 사돈인 금순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은심은 그와 함께 고향인 경남 남해로 떠나고, 자신을 짝사랑했던 태호와 우연히 마주한다. 은심의 제안에 셋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소풍을 떠난다. 60년 만에 찾아간 고향, 다시 만난 열여섯 살 추억이 애뜻하다. 2월 7일 개봉. 감독 김용균 출연 김영옥, 나문희



<세빌리아의 이발사>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가 찾아온다. 때는 17세기 스페인, 알마비바 백작은 부잣집의 아름다운 여인 로지나에게 첫눈에 반한다. 그는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로지나의 후견인 의사 바르톨로의 감시로 접근마저 쉽지 않다. 출연자는 정통 오페라의 의상을 갖춰 입고 각 인물을 연기하며, 무대배경과 다양한 소품이 더해져 생동감 넘친다. 해설을 곁들여 누구나 재미있게 즐긴다.

날짜 2월 24일 장소 경기도 성남아트리움 문의 031-783-8000

<살아 있는 자를 수선하기>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19세 청년 시몽의 심장을 51세 끌레르에게 이식하는 24시간의 과정을 그린 일인극이다. 무대에 등장하는 한 명의 배우가 시몽, 죽음을 선고하는 의사, 남겨진 가족, 장기기식 코디네이터, 장기기식 수혜자 등 각각의 인물과 그들을 관통하는 서술자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한다. 프랑스 소설가 마일리스 드 케랑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기간 3월 10일까지 장소 서울 국립정동극장 문의 02-762-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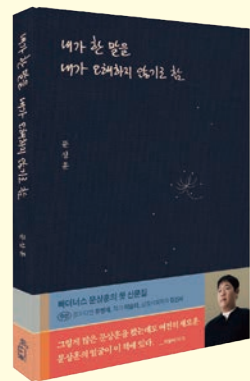
<축제>

2024년 갑진년을 맞아 국립무용단이 특별한 명절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 '영신' '오신' '송신' 등 총 3장으로 나뉜 공연은 액운을 떨치고 행복과 안녕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전통춤의 품격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지전춤' '진주교방굿거리춤' '신칼대신무' 등 일곱 작품이 이어져 신명난다. 청룡의 해를 기념해 강렬하고 힘차게 재구성한 혼성 군무가 하이라이트다.

기간 2월 7일~11일 장소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



BOOK



<내가 한 말을 내가 이해하지 않기로 함>

유튜브 채널 '빠더너스' 크리에이터이자 문샘·문이병 등으로 활약 중인 문상훈이 첫 책을 냈다. 통찰과 휴머니즘 가득한 웃음을 선사하는 그의 내면이 들여다보이는 글이다. 뜻밖에도 도입부는 오톤 '자기 검열' 이야기다. 이 정도로 엄격했기에 그런 콘텐츠가 가능했구나 싶다. 혼자 울고 웃었던 시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마음을 어루만진다. 문상훈 지음 위너스북 펴냄



<나의 미국 인물 기행>

지난 12월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탄식했다. 재일 한국인인 선생은 엄숙한 시절 두 형이 한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뒤 사람과 세상에 관심을 가졌고, 경계인으로서 빼어난 책을 써 왔다. 유작은 1980년대, 2016년과 2020년에 미국을 오가면서 관찰하고 사색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이라 슬프고, 남겨 주셔서 감사하다. 서경식 지음 최재혁 옮김 반비 펴냄



<선릉과 정릉>

쓰고 읽는 행위가 우리를 사람답게 한다. 출판사 난다가 시(詩)의 적절함으로 시의 적절하게 열두 시인이 매달 건네는 이야기, '시의적절' 시리즈를 기획했다. 1월은 김민정 시인의 <읽을, 거리>가 채워 주었고, 2월엔 전옥진 시인이 찾아왔다.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있음과 없음을 묘사하는 시·서간문·에세이가 따스하다. 매일 동행할 책이다. 전옥진 지음 난다 펴냄



<도그데이즈>

'영광'로 건물을 매입한 민상은 개를 싫어해 세입자인 동물병원 수의사 진영과 늘 티격태격한다. 어느 날 민상과 진영은 건물 앞에서 작은 교통사고를 내고, 세계적인 건축가 민서가 휘말려 반려견 완다를 잃어 버리고 만다. 혼자여도 함께여도 외로웠던 이들이 특별한 단짝 반려견을 만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2월 7일 개봉. 감독 김덕민 출연 윤여정, 유해진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아리랑' 가락 타고 기차여행

아이와 여행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KTX매거진>을 펼쳤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소개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기차 여행 하고, 시장도 구경하면 저와 아이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겠어요.
김민정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소박한 듯 특별한, 마을 여행

<KTX매거진>에서 강원도 강릉 명주동과 평창 이효 석문화예술촌을 다룬 서정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둥근 달이 떠오르면 달빛 아래 소금을 뿌려 놓은 듯 반짝거릴 메밀꽃밭이 떠올라 괜히 옆자리 남편 손을 꼭 잡았답니다. 이수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2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부모님 회갑을 맞아 강원도 속초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설악산 울산바위가 보이는 숙소, 닭강정, 회국수, 오징어순대, 대구탕... 제가 앞장서 계획한 뒤 부모님을 모시고 간 여정이었는데 다들 좋아해서 뿌듯했습니다.
유수빈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무설탕 초콜릿을 코팅한 한 봉 견과 초코헬스 제로넛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류·콜레스테롤·트랜스지방 함량 제로인 초콜릿 간식으로, 무설탕 초콜릿을 입힌 아몬드, 헤이즐넛, 캐슈넛트가 골고루 들었습니다. 카카오 버터를 넣은 벨기에산 리얼 다크 초콜릿 등 높은 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해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포장이 예뻐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제품 문의 02-791-0756



Information



제14회 철도사진공모전 금상 '분천역 겨울 풍경'



- 090 코레일 소식
-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00 열차 이용 안내
- 102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 수혜 지역 확대 위한 열차 운행 조정



한국철도공사가 KTX 운행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했다. 충북 충주에서 경기도 이천 부발 역까지 운행하던 중부내륙선 KTX-이음의 경로를 성남 판교역까지 늘리고, 경부선 경남 양산 물금역에 KTX가 정차하는 등 철도 교통 서비스를 확대했다.

열차 승차권 온라인 예매 방법 자료 배포



온라인으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이에게 희소식이다. 한국철도공사가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 매체별 승차권 예매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국철도TV' 등에 게시하고, 안내 책자는 전국 주요 역 종합 안내소 등에 비치했다.



한국철도공사, 디지털 신경영으로 종합 모빌리티 기업 도약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월 대전 사옥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4년을 '디지털 신(新)경영' 원년으로 삼았다. 이로써 종합 모빌리티 기업 도약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유지 보수 과학화를 통한 안전 디지털 혁신 등을 중점 목표로 설정,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플랫폼 제작 등을 추진한다.

KTX 개통 20주년 슬로건·엠블럼 공개



2024년 스무 살이 된 KTX를 축하하는 슬로건과 엠블럼이 탄생했다. 슬로건은 'KTX 20년의 가치, 100년의 행복'이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KTX를 기념하고,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한다. 기념 엠블럼은 KTX의 역동성을 상징하며 미래에도 변함없이 혁신을 지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BEST Awards SERVICE

고객이 선정한 2023년 최고의 철도 서비스는?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모바일 앱 코레일톡 1위!

한국철도공사가 '2023년 올해의 베스트 서비스'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부터 해마다 진행한 투표는 한국철도공사가 한 해 동안 제공한 다양한 철도 서비스를 고객이 평가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철도공사 정책 수립·개선에 적극 반영한다.

<p>1위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코레일톡 18.0%</p>  <p>휴대전화 기기 변경 시 승차권 확인 방법 개선, 열차 출발·도착 전 알림 직접 설정 가능, 노인석 예매 서비스, 디자인 개편 등</p>	<p>2위 신규 노선 개통 및 고속 열차 운행 확대 17.2%</p>  <p>서해선 소사~일산 구간 연장, 수도권 전철 1호선 소요산~연천 구간 신규 개통,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p>	<p>3위 친환경 신형 열차 ITX-마음 14.8%</p>  <p>노후한 디젤 열차를 대체할 친환경 일반 열차 탄생 (무선 인터넷, 독서등, 전원 콘센트와 USB 포트 등 편의 설비 완비)</p>
---	--	--



열차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N카드 자세히 보기>



시즌2는 2개월 간 (24년 1월~24년 2월) 시범운영



- 대상열차** KTX,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
* ITX-청춘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 구입방법** 코레일톡(하단 '할인·정기권' - 'N카드')
- 카드종류** 이용인원 : 1인용, 2인용
 이용구간 : 기본 1개 구간에서 3개 구간 까지
 기간·횟수 : 60일권 10, 15, 20회 / 90일권 15, 20, 25, 30회
- 승차권 할인율** KTX : 기본 15% ~ 최대 40% 운임할인
 일반열차 : 기본 15% ~ 최대 30% 운임할인
- 꼭 알아주세요!**
 - N카드로 구매한 승차권은 본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2인용의 경우 지정된 추가사용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승차권은 각자 구매하여야 합니다.
 - N카드는 승차권이 아닙니다. 할인승차권을 반드시 구매하시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설날, 추석기간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은 N카드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 할인은 운임대상으로 특실(운임+요금)의 경우 운임에 한하여 할인을 제공합니다.
 - 열차 탑승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이후의 열차를 미리 예약할 수 없습니다.
 - 할인승차권의 할인율은 열차별·일자별로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김관우 역무원(가운데)

고객의 편지

지난 11월, 전남 여수로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역에 도착한 후 B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앞으로 갔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차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죠. 열차 좌석에서 일어날 때 뭔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나서 무거운 짐을 이끌고 종합 안내 창구에 가 역무원에게 문의했습니다. 마침 제가 탑승했던 열차의 종착역이 경기도 고양 행신역이라 물건을 찾을 여유가 있다며 연락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다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이 안도했습니다. 곧 물건을 가져가라는 전화가 왔고, 한달음에 차 열쇠를 받았습니다. 역무원은 얇은 미소를 띠며 "제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그 시각, 종합 안내 창구에서 근무하던 역무원에게 감사를 포함합니다.



광명역 역무원 김관우

고객님 한 분이 광명역 종합 안내 창구에 오셔서 열차에서 차 열쇠를 분실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난감해 보였습니다. 먼저 승무지원단에 연락해서 열차 번호, 호차, 좌석 번호 정보와 유실물이 있을 법한 위치를 전달하고 최대한 빨리 찾아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열차 안에서 차 열쇠를 발견했고, 도착역에 연락해 가장 빠른 열차로 광명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사례하고 싶다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유실물 담당 역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사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유실물을 받고 환하게 웃는 고객님의 얼굴을 보면 피로가 풀립니다.



코레일을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출발역의 이별함 시

제11회 한국철도공사 철도사진공모전 당선작 <사랑해요, 할머니>(김종진)

보고 있어도 그리운 마음
보내면서도 보내지 못하는 마음
아쉬움 뒤로하고 손 흔드는 할머니의 미소에
기차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할머니, 아쉬워하지 마세요.
기차는 출발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금방 또 만나러 올게요.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과 함께
기차가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발차를 "출발"로,
열차운행의 기점이 되는 역을 의미하는 시발역을 "출발역"으로 순화하여 행정규칙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철도순화어 보러가기

KORAIL SNS

판교행

충주시 홍보맨과 판교행 KTX 전세 났습니다. 중부 내륙선 KTX가 판교역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충북 충주시 홍보맨과 함께 타 봤습니다!

'해병대 군가'

최애곡이 '군가'라는 해병대원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기차역 인터뷰! '지금 어디 가세요?' 1편 영상입니다.

KTX 개통 20주년
20th ANNIVERSARY

KTX 개통 20주년 2004년 4월 1일 개통한 KTX,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달렸습니다. 'KTX 20년의 가치, 100년의 행복!'

서울역에 등장한 또 하나의 KTX

서울역에 등장한 또 하나의 KTX 목적지, 안동행. 2023년 12월 29일, 서울역에서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CDC 통근열차 그리고 RDC 무궁화호, 바다열차 마지막!

CDC 통근열차 그리고 RDC 무궁화호, 바다열차의 마지막. 지난 12월, 3개의 디젤동차가 운행을 종료했다는 소식입니다.

남도해양열차(S-train) 타고 겨울 기차여행 출발

남도해양열차 타고 겨울 기차 여행 출발. 좋아하는 사람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갈 만한 겨울 여행지와 관광열차를 추천합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TRAVEL NEWS

WWW.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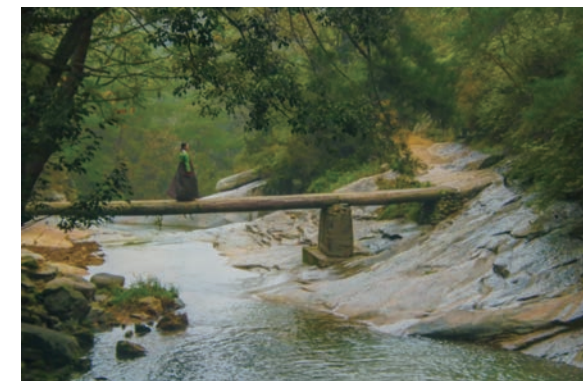
하회마을

풍산 류씨가 터를 닦아 600여 년간 거주한 씨족 마을이다. 잘 보존된 기와집과 초가, 돌담이 고즈넉한 옛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민의 애환이 담긴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이 풍류를 즐기며 행했던 선유줄불놀이를 전승해 시연하니 놓치지 말고 감상하자.



월영교

거울처럼 맑은 안동호를 월영교가 가로지른다. 다리를 건너다 팔각정에서 사진을 찍고, 문보트를 탄다. 보트가 다리 아래를 지날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니 간절한 소원 하나를 떠올린다. 밤이 내린 후 빛나는 문보트 위에서 감상하는 음악 분수 쇼가 백미다.



만휴정

옛 정취가 살아 숨 쉬는 안동에서도 이름난 정자가 있다. 조선 시대 연산군이 군림하던 시절, 임금이 폭정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김계행이 나이 일흔하나에 정자를 세운다. 바로 송암폭포 위에 자리한 만휴정이다. 정자에 앉아 자연을 감상하는 것은 기본, 시 모임 등을 여는 공간으로도 사용했다. 만휴정만큼이나 정자 앞 외나무다리를 보러 오는 사람도 술하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이 명대사를 남긴 곳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말했던 주인공처럼 다리에 서서 사진을 남겨도 좋다.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고장



부용대

처음엔 하회마을 북쪽 언덕이라 하여 '북애'라 불렀으나, 훗날 하회마을이 연꽃 모양을 닮았다는 데에서 착안해 연꽃을 의미하는 '부용'을 이름으로 삼았다. 서애 류성룡이 <징비록>을 집필한 옥연정사, 류성룡의 형인 류운룡이 학문을 닦고 제자를 양성한 겸암정사가 이곳에 있을 만큼 운치가 그윽하다. 해발 64미터 정상에 서면 낙동강 건너편으로 하회마을 전경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온다. 특히 10월은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보려는 이들로 북적거리는데, 불꽃이 부용대에서 출발해 낙동강을 가로질러 하회마을로 쏟아지는 모습이 장관이다.

경북 안동

안동시 열차 연계 상품



중앙선 KTX가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덕분에 안동으로 더욱 편리하게 여행을 떠난다. 마침 한국철도공사 경북권 여행센터가 중앙선 KTX-이음 열차로 안동을 방문해 먹거리를 맛보고 즐길 거리를 탐방하는 '먹탐 1박 2일' 안동 시티 투어 상품을 판매한다. 안동역에 내린 뒤 안동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구석구석 알차게 둘러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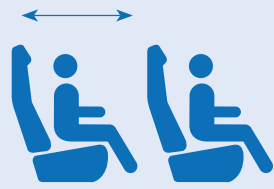
- 1일차** **하회마을 권역** 안동역-부용대-하회장터-중식-세계탈박물관-하회별신굿탈놀이-하회마을-병산서원
- 2일차** **도산서원 권역** 안동역-선성현문화단지-중식-예끼마을-도산서원-이육사문학관-264청포도와인-안동역
- 봉정사&만휴정 권역** 안동역-만휴정-월영교-중식-낙강물길공원-안동루(안동댐 전망대)-봉정사-안동역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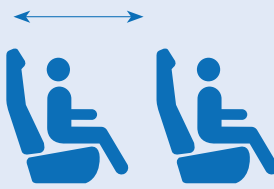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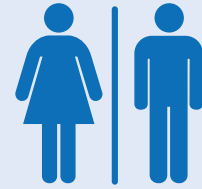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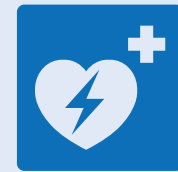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ITX-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도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 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5분, (T2↔광명역) 약 8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터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 (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대중교통안심카드 하이패스 R+ 교통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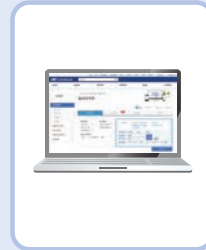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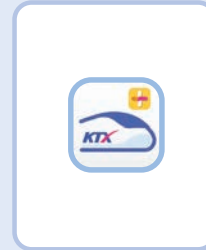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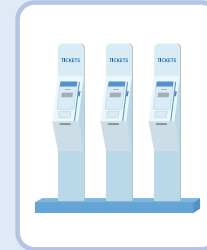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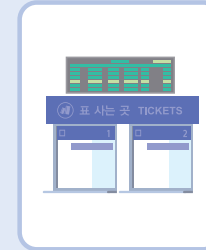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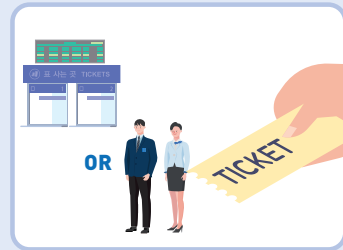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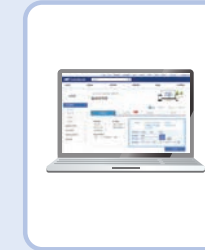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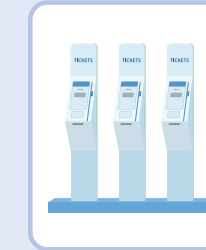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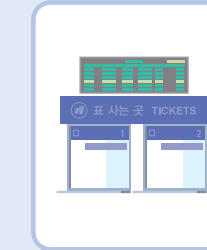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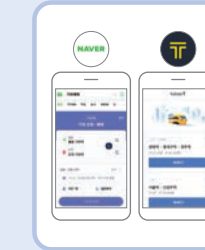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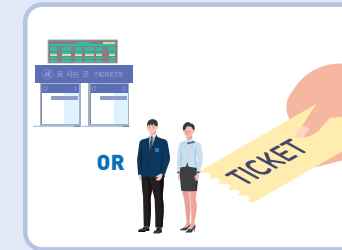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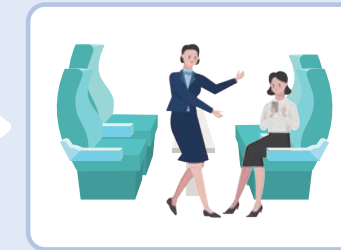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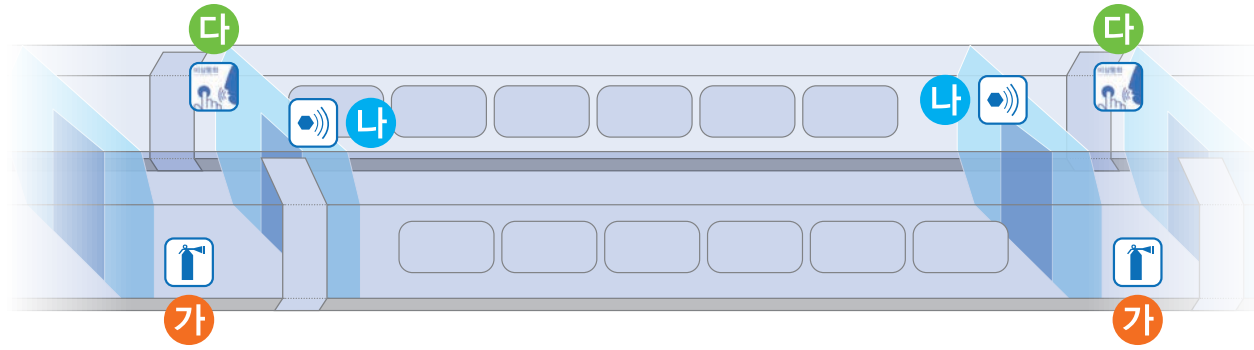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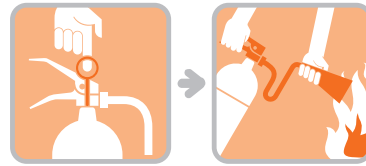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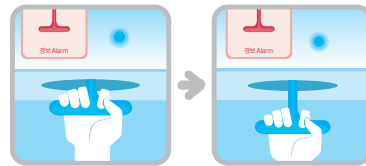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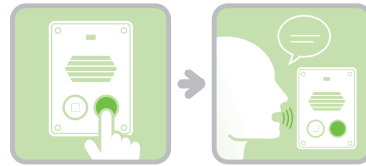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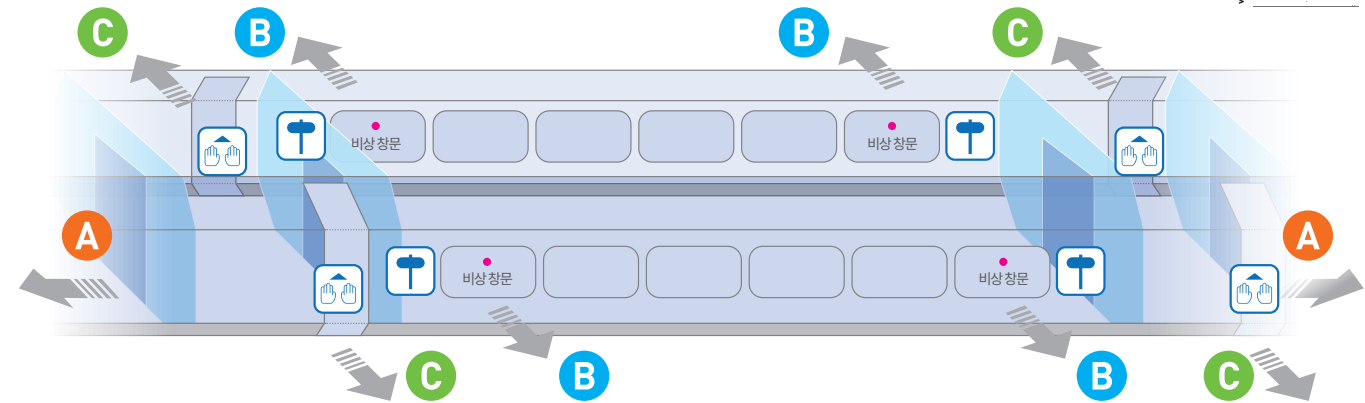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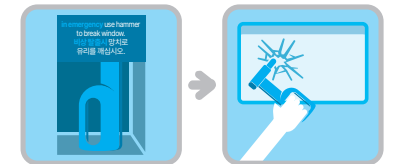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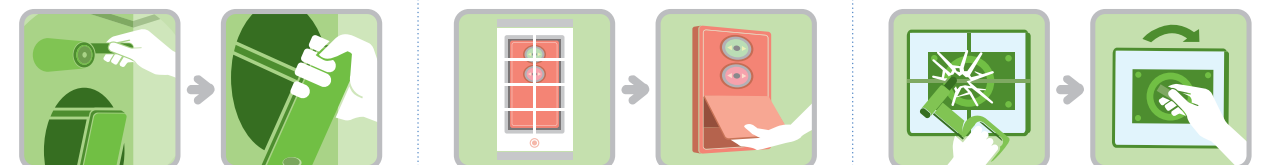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목포 여행 계획표를 공개합니다

목포에 다녀와 목포 기사를 쓰면서도 목포로 떠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아담한 면적에 볼거리가 몰려 있어, 여행 난도는 최하급이지만 만족도는 극상급인 도시다. 이번에 간 서산동은 주민의 입말을 살려 쓴 시, 직접 그리셨다는 벽화가 정말 넘쳤다. 아, 목포 넘넘 좋아. 언젠가는 목포의 모든 길을 걸어 보겠다는 야심을 가진 제가 여행 일정을 추천합니다. 목포역→(도보 15분)목포근대역사관→근대역사거리(근대 건물이 정말 많고, 카페 등으로 개조한 곳도 분위기 최고)→(도보 15분)서산동 시화골목→(버스 20분)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승강장→유달산승강장 하차, 등반 30분 만에 정상, 다도해 풍경에 감격하기→고하도승강장 하차, 둘레길과 해상산책로 걷고 감탄하기→케이블카 타고 북항으로 돌아와 목포대교 야경에 감동하기. 삼학도크루즈와 갯바위, 스카이워크 주변 바다도 빼놓지 말기. 그 외 목포 매력 다수. **김현정**

대관령에서

어떤 대화를 기억한다. 산등성이를 바라볼 때 왜 오묘한 기분이 들까. 커다란 나무, 타오르는 햇덩이, 굽이치는 물길 같은 것들을 마주하면 가슴이 저릿한 이유는 뭘까. 자연의 무엇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걸까. 차창에 흐르는 풍경을 응시하던 내가 두서 없는 질문을 늘어 놓는다. 자연에 시간이 축적되어 있어서가 아닐까. 운전석에 앉아 전방을 주시하던 동행이 예의 덤덤한 말투로 응수했다. 어쩌면 자연이 곧 시간 아닐까. 자연은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어 내니까.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강릉에 갔다. 수없이 강릉을 여행했지만 맨발로 대관령 자락을 밟는 건 처음이었다. 처음엔 발이 떨어져 나갈 듯 추웠는데 점차 땅의 온도에 익숙해졌다. 도시에 살다 보면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고 만다. 대관령에서 이 땅에 깃든 시간을 생각했다.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강은주**



정답 말고 마음

손재주가 필요한 일에 자신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물 '올랑올랑'에서는 긴장했습니다. 까만 배경에 자개를 소재로 마음껏 표현하라고 하시니 막막함에 "선생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이 조각은 너무 큰 것 같고, 저건 색이 튀어서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조그마한 동그라미 채우는 데 온갖 고민을 하며 공공 앓던 저에게 최정은 대표님이 건넨 말이 감동이었어요. "공예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후로도 조금씩 버벅거렸지만 결국 멋진 휴대전화 그림책을 완성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주머니에 넣어 둔 것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림책을 볼 때마다 다정하던 그 말이 떠올라요. 올해도 하루하루 채워 나가다 보면 꽤 근사한 시간이 되겠죠? **남혜림**

Puzzle



85쪽 '퍼즐' 정답



소소한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OLD & NEW

전주 서학예술마을 Art walk@Night

마을을 가꾸는 예술인과 함께 걷고, 체험하는 골목여행 프로그램

변화의 시작

전주관광의 공간적 영역을 확대하고 체류형 생활관광과 야간관광 콘텐츠로서 지역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서학예술마을을 중심으로한 예술인들이 모여 관광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입니다.

여행정보

- 맛** | 1978년 개업한 노포(老舖) 『원조약수감자탕』 전주에 정착한 청년이 빵굽는 카페 『오르도네』 현지인에게도 소문난 브런치 성지 『구프오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전주스타일 분식 『김밥본부』 잠봉햄과 꿀을 넣어 만든 베이글 맛집 『올드브릭』
- 체험** | 준비된 의상을 입고 골목을 걷는 코스튬파티, 자수작품과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감상, 나무를 활용한 우드버닝, 엄마가 말해준 태몽일기 적기, 티아라쓰고 사진찍기 등 예술인들의 재능을 흠뻑 활용한 골목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소하고 재미있는 13가지의 체험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이란?
 지역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관광현안을 발굴하고 해결을 주도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지역관광 마케팅 및 관광산업 육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DMO: Destination Marketing&Management Organization

| 문의 |

